

군사교범, 근대군사교육의 시작



군사교범, 근대군사교육의 시작



발 간 사

“연졸(練卒)은 무비(武備)의 요긴한 일이니
곧 조연(操演)과 교기(教旗)의 술법이다”

『목민심서』 병전(兵典) 제2조 연졸(練卒)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군사 조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비와 공격의 자세를 반복하여 익히는 ‘조연’과 깃발의 명에 따르도록 훈련하는 ‘교기’를 습득하는 것이 군사훈련의 요체라고 보았습니다. 즉, 군사훈련은 강한 군대 양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서구열강과 일본의 무력침략을 받은 후, 조선에서는 근대적인 군대 양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외국인 군사교관 초빙, 신식 무기·장비 도입 등 군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급 무관 양성, 신식 군대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근대 군사 교리와 개념, 전술 등을 정리한 다양한 군사교범들이 편찬되었습니다. 군사 교범의 편찬은 강한 군대 양성의 기본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현재의 군사훈련도 100여 년 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략·전술의 발전, 무기의 발달 등 군사 분야에서도 첨단화가 이루어지면서 훈련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만, 기본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부터 편찬되었던 군사교범의 편찬과정과 의미는 군사교육의 단계적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책은 대한제국, 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편찬했던 군사교범들의 편찬배경과 내용,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편찬한 교양서입니다. 최근에는 “역사가 넘쳐난다”고 말할 정도로 도서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역사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교범과 같이 다소 전문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읽을거리의 ‘공급’은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요구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군사사 읽을거리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오성대



프롤로그: 근대군사교육, 그 첫걸음을 떼다	06
● 제1장 대한제국의 군사교범	09
제1절 대한제국, 근대군사제도를 도입하다	11
근대적 군비강화 모색	11
근대식 군제개혁 시도	14
제2절 군사간부 양성의 산실,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다	20
훈련대 사관양성소 설치	20
대한제국 무관학교 설립	22
「강령」과 「교칙」 수립	29
제3절 군사교범의 편찬, 근대 군사교육의 초석이 되다	40
군사교범 편찬	40
근대 기초군사 훈련 - 「보병조전」	41
근대 전술 원칙 - 「전술학교정」	49
● 제2장 독립군의 군사교범	57
제1절 신흥무관학교, 전투를 연구하다	60
서간도 한인이주와 독립군 기지건설	60
신흥무관학교 설립	67
군사교육 실시	74
『신흥학우보』의 보병전투연구	77

제2절 대한군정서, 근대 군사교범을 활용하다	101
북간도 한인이주와 군사교육의 시작	101
대한군정서 창설	105
사관연성소 설립	109
근대 군사교범의 활용과 최해의 『훈련교본』	115
● 제3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교범	131
제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사교범 편찬을 추진하다	13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조직구성	133
임시정부 군무부의 군사교범 편찬	136
제2절 『보병조전초안』, 세상에 나오다	145
『보병조전초안』의 해제	145
제3절 『보병조전초안』의 해부, 독립군의 훈련을 살펴보다	149
제1부 - 기초군사교육의 전형	149
제2부 - 전술훈련의 다양성	154
제3부 - 경례와 관병식	158
부 록 - 이해를 돕는 순우리말과 그림	159
에필로그: 근대 군사교범, 그 가치와 깊이를 더하다	164

프롤로그: 근대군사교육, 그 첫걸음을 떼다

한·중·일 3국은 19세기 열강이 가져온 충격 속에 무력(武力)을 앞세운 서구의 근대와 마주하였다. 이 시기 동아시아 3국은 모두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인한 국권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근대화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동아시아의 근대화에 대해 자강의 길에서 일본은 성공했지만, 조선과 중국은 실패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사실 조선은 병인양요-신미양요로 이어지는 외세의 군사침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물론 군제개편이나 무기도입 및 개발 등 군사 분야에서 개선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 외세의 침입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조선의 군사정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19세기 말 국제법과 군사력을 앞세운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확장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조선보다 앞서 불평등조약의 폐해를 경험한 중국과 일본도 불평등조약이라는 근대적인 외교수단과 군사력을 앞세워 조선의 국가주권을 위협하였다.

조선은 자주와 독립을 지키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중·일 양국과 마찬가지로 외세와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위기감이 앞섰던 만큼 조선의 개화정책도 군사 분야를 우선시하였다. 따라서 조선에게는 근대적 군사편제와 무기의 도입이 급선무가 되었다.

근대 시기 군사 분야는 화기(소총·대포)의 발달, 병종의 다양화, 전술의 발전 등 근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조선은 군사에 관한 전 분야에서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가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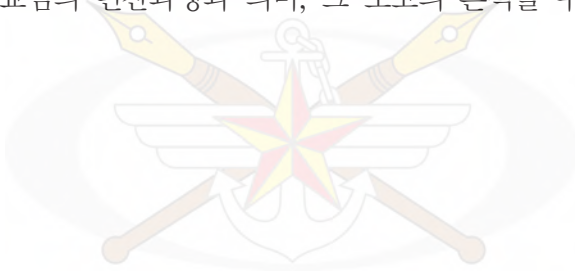
하지만 조선인 중에는 근대적 군사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했다. 따라서 조선은 신식 군대 교육과 훈련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외국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주적인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교관보다 조선인 교관, 특히 초급 무관의 양성이 시급했다. 게다가 초급 무관을 양성하고 신식 군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군사교리와 개념, 전술, 용병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가 필요했다.

대한제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세의 선진 군사교리를 참고하여 전투기술, 전술과 교련, 전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여러 종류의 군사교범을 편찬하였다. 그들은 군인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교육하여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군대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비록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정책에 국가가 병합되면서 이

러한 노력은 허사가 되는 듯하였으나, 그 의지는 독립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다.

국가 주권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수이다. 강한 군대는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양성된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는 외세의 침략, 주권상실,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등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각고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굳은 의지가 근대 군사교범의 편찬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 책은 근대 군사교육의 첫걸음을 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군사교범의 편찬과정과 의미, 그 노고의 흔적을 추적하였다.



제1장

대한제국의 군사교범





제1장 대한제국의 군사교범

제1절 대한제국, 근대군사제도를 도입하다

근대적 군비강화 모색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이었다. 우세한 군사력을 앞세운 일본의 강압으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던 조선 정부는 군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무비자강(武備自強)의 중요성을 인식한 고종은 신식무기를 갖추고 근대식 연병술(練兵術)로 훈련된 신식 군대를 창설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신식 문물과 무기가 필요했다. 사실 「강화도조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일어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경험한 조선 정부가 군사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종은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신식무기의 성능과 위력에 큰 관심을 가졌다. 「강화도조약」 체결을 기념하여 일본은 고종에게 기관총의 일종인 회전포(回轉砲), 육연단총(六連

短銃), 칠연총(七連銃), 탄약 등을 선물하였다.¹⁾ 그 후 고종은 무위소(武衛所)에 자기황(自起礮)²⁾, 칠연총 등을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³⁾

또한, 조선 정부는 수신사, 영선사 등을 일본과 청국으로 파견하여 무기, 화륜선 등 서양문물을 도입하고 근대적인 여러 시설에 대해 배우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도 그랬던 것처럼, 1880년 전후 시작된 조선의 개화 정책은 군사력 강화정책이 우선시 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분야로 확대 추진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조선 정부의 군사력 강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근대적인 무기체제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대조직을 근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에 근대적인 무기 생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웠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우선 해외로부터 무기, 장비를 도입하고, 근대적인 군사 지식을 갖춘 외국인을 초빙하여 군대를 양성하기로 하고 정책을 수립하였다.⁴⁾

이러한 정책에 따라 편제된 최초의 신식 군대가 바로 1882년

1) 『고종실록』, 고종 13년 2월 4일.

2) 문지르거나 부딪쳐서 불이 일어나도록 화약을 장치한 물건을 통틀어 자기황이라고 한다.

3) 『고종실록』, 고종 13년 8월 21일.

4)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37 - 서세동점과 문호개방-』, 국사편찬위원회, 2000, 257쪽.

(고종 18년)에 창설된 별기군(別技軍)이었다. 1882년 1월 13일 고종은 종래의 구식군대인 오군영(五軍營)을 통합하여 두 개의 군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하였다.⁵⁾ 이에 따라 훈련도감(訓練都監), 용호영(龍虎營), 호위청(扈衛廳)은 무위영(武衛營)으로, 나머지는 장어영(壯禦營)으로 통합되었다.⁶⁾ 별기군은 이들 오군영의 지원자 중에서 80명을 선발하여 무위영 예하에 창설한 신식 군대였다.

별기군의 훈련은 조선 주재 일본공사관에 근무하는 공병 소위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가 담당하였다. 별기군은 신식 장총에 초록색 신식 군복을 착용하였고, 급료를 비롯한 각종 대우도 구식 군대에 비해 좋았다. 구식군대와 신식 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와 대체로 양반 신분이었던 별기군 군인에 의해 발생한 폐해, 반일 감정 등이 종합되어 당시 별기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식이 쌓여갔다.

결국, 임오군란이 발발하였고, 대원군이 등장하면서 군제는 다시 이전의 군영체제로 환원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던 조선의 근대적인 군제개편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임오군란으로 신식 군대 양성이 좌절되는 듯하였으나, 근대식 군대훈련은 다시 시도되었다. 1883년부터 조선 정부는 장교를 양성하고 군대를 근대식으로 훈련하기 위해 미국에 군사교관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888년 4월 수석교관 다이(Dye, W.

5) 『고종실록』, 고종 18년 11월 24일.

6) 『일성록』, 고종 18년 12월 29일.

M.), 조(助) 교관 커민즈(Cummins, E. H.), 리(Lee, J. G.), 그리고 일본 주재 미국영사관에서 근무하던 닌스테드(Nienstead, F. J. H.) 등 4명의 미국인 교관이 초빙되었다.

1888년 1월 13일 고종은 교서를 내려 미국인 교관이 도착하면 바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생을 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이들이 교육받을 기관인 연무공원(鍊武公院)을 설립하였다.⁷⁾ 군제개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군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근대 군사교육 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인 연무공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양반 신분이었던 학생들은 힘든 군사훈련을 꺼렸다. 또한, 졸업 후에는 과거에 합격해야만 정식 무관이 될 수 있다는 제도도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졌다. 무엇보다도 재정난으로 인해 봉급 지급이 제한되었고, 여전히 존재하는 무인(武人)에 대한 열악한 대우는 연무공원의 운영에 큰 제약이 되었다. 결국,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연무공원은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일본군에 점령당한 이후 단행된 내정개혁으로 군무아문에 흡수되었다.

근대식 군제개혁 시도

1894년 2월 15일(음력 1월 10일) 전라도 고부에서 대규모 봉

7) 『고종실록』, 고종 24년 12월 1일; 12월 25일.

기가 일어났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1,000여 명의 농민들⁸⁾과 동학교도⁹⁾이 일으킨 봉기였다. 탐관오리 숙청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세운 창의문을 발표한 동학농민군은 고부 점령을 시작으로 전라도 일대를 빠르게 점령했다. 특히 5월 11일의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군을 크게 격파하면서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더욱 커졌다.

5월 31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정부는 정부군만으로 농민군을 막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이홍장(李鴻章)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을 파병하기로 하였다. 청의 파병 소식을 접한 일본 정부도 「제물포조약」에 따라 조선에 거류하는 일본인과 공사관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에 군대를 파병했다.

청·일 양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자 농민군 지도부는 폐정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조선 정부가 이 개혁안을 받아들이면 농민군을 해산하겠다고 하면서 강화를 제안한 것이다. 이는 청·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이기도 했지만, 전주성 입성 이후 관군과 거듭된 전투에서 누적된 피해와 위기감, 그

8) 고부는 전라도 지역에서도 미곡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수령의 수탈과 탐학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했다.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趙秉甲, 1844~1911)은 농민의 노동력 강제 동원, 고율의 세금 징수 등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 보내는 대동미를 빼돌리는 등 부정부패를 자행했다. 즉, 고부 농민봉기는 정치 기강의 문란과 매관매직의 성행, 관리들의 극심한 부패 등 조선 말기 사회경제의 모순 구조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9) 교조 신원과 더불어 척왜양(斥倭洋)과 탐관오리 처벌을 주장한 동학은 삼정문란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고부 농민들은 동학 접주 전봉준을 통하여 징세 경감을 요청하는 민소(民訴)를 조병갑에게 제출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

리고 농번기로 인하여 농민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것이었다. 6월 11일 농민군과 조선 정부는 폐정개혁안의 이행을 약속하는 「전주화약」을 체결하였고,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군이 해산하였음에도 조선에 여전히 주둔하고 있던 청국과 일본의 군대로 인해 발생했다. 철군 문제를 두고 청·일 양국의 갈등은 커졌다. 마침 조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정부는 계속 주둔할 명분이 필요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 주재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를 통하여 「내정개혁안(內政改革案)」 5개 조를 제시하며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¹⁰⁾

또한, 일본 정부는 청에도 조선의 내정을 함께 개혁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청은 일본 정부의 요청을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거절하였다. 조선 정부도 일본군이 철수하고 나면 조선 스스로 자주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일본군에게 신속하게 철군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오토리 공사는 철병과 조선의 내정개혁은 다른 문제라면서 일본 단독으로라도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겠다고 통고하였다. 1894년 7월 23일 결국 일본군은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였고, 이는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구실로 삼아 민씨

10) 「내정개혁안」 5개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중앙정부의 제도와 지방 제도를 개정하고 아울러 인재를 채용할 것 ②재정을 정리하고 부원(富源)을 개발할 것 ③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 ④국내의 내란을 진정하고 안경을 보지(保持)하는데 필요한 군비(軍備)를 설치할 것 ⑤교육의 제도를 확립할 것(『일본 외교문서』, 권27 1책, No. 396).

세력을 몰아내는 한편, 개혁적 성향의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갑오 정권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였다.

군국기무처는 초정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군제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주도하였다. 1894년 7월 30일 조선의 정부 조직은 2부[공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8아문[내무아문(內務衙門), 외무아문(外務衙門), 탁지아문(度支衙門), 법무아문(法務衙門), 학무아문(學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 군무아문(軍務衙門), 농상아문(農商衙門)]으로 개편되었다.¹¹⁾

이때 6조 중 하나였던 병조(兵曹)는 군무아문으로 개편되었다. 군무아문은 ‘전국의 육군과 해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군인과 군속을 감독하고, 예하의 각 부대를 감독 통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군무아문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총 8개국의 하위부서를 설치하였다.

11) 『고종실록』, 고종 31년 6월 28일.

[표 1] 군무아문 하위부서 편성표

국명	정원	업무
총무국 (總務局)	참의 1, 주사 2 (비서관 겸임)	아직 설치되지 못한 각국의 사무 관장
친위국 (親衛局)	참의 1, 주사 4	대궐에 소속된 군사를 관장하며 일체 군대 징발과 군대 편제에 관한 사무 총감독
진방국 (鎭防局)	참의 1, 주사 8	중앙과 지방을 방위하는 각 군영에 대한 사무 관장
해군국 (海軍局)	참의 1, 주사 8	전국의 해군을 총감독하며 군인과 군속, 관하 각 부대를 감독 통솔
의무국 (醫務局)	참의 1, 주사 4	육군과 해군 부대 내 의무와 약제 등에 관한 사무 관장
기기국 (機器局)	참의 1, 주사 2	군기(軍器)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모든 일과 군기를 수매(收買)하는 사무 관장
군수국 (軍需局)	참의 1, 주사 4	전국의 육군과 해군의 군량, 복장 등의 사무 관장
회계국 (會計局)	참의 1, 주사 4	군국아문의 출납문서와 각 군영, 진영의 회계 사무 관장

또한 같은 해 12월 17일 칙령에 따라 호위청(扈衛廳)·통위영(統衛營)·장위영(壯衛營)·총어영(摠禦營)·경리청(經理廳) 및 금군(禁軍)·무예별감(武藝別監)·별군관(別軍官), 전 친군영(前親軍營)의 이예(吏隸)¹²⁾ 등이 군무아문에 편제¹³⁾되면서 군무아문은 더욱 확대되었다.

조직 개편에 이어 직제 개편도 이루어졌다. 같은 해 12월 30일 칙령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를 반포하여 대장(大將, 정1품이나 종1품), 부장(副將, 정2품), 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정위(正尉)[이상은 3품], 부위(副尉), 참위(參尉)[이상은 6품], 정교

12) 관청과 지방 관부 등에 소속된 아전과 하인 등을 통칭한다.

13) 『고종실록』, 고종 31년 11월 21일.

(正校), 부교(副校), 참교(參校)[이상은 품계 외] 등 육군 장교 및 하사관의 계급을 제정하였다.¹⁴⁾

그러나 군제개혁에 관한 이러한 조치들은 1894년 갑오개혁 시기에 시행된 내정개혁의 목적으로 논의된 것이었고,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아니었다. 본격적인 군제개혁은 1895년 을미개혁으로 시작되었다.

1895년 4월 20일에 반포된 칙령 제55호 「군부관제(軍部官制)」를 통해 군무아문은 ‘군부(軍部)’로 개칭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 군부 아래에는 군무국(軍務局), 포공국(砲工局), 경리국(經理局), 군법국(軍法局), 의무국(醫務局) 등 5개국을 두었으며, 그에 따른 근대적 군제 마련을 추진하였다.¹⁵⁾

근대적 군제개편과 함께 「무관병상당관관등봉급령(武官並相當官官等俸給令)」¹⁶⁾,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¹⁷⁾, 「육군장교분한령(陸軍將校分限令)」¹⁸⁾, 「군인현역정한연령조(軍人現役定限年齡條)」¹⁹⁾ 등을 반포하여 장교를 비롯한 군인들의 지위와 정년, 봉급 등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각종 군사 관련 법을 정비하여 신식 군대 편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14) 『고종실록』, 고종 31년 12월 4일.

15) 『고종실록』, 고종 32년 3월 26일.

16) 『고종실록』, 고종 32년 3월 30일.

17) 『고종실록』, 고종 32년 4월 9일.

18) 『고종실록』, 고종 32년 4월 27일.

19) 『고종실록』, 고종 32년 4월 27일.

제2절 군사간부 양성의 산실,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다

훈련대 사관양성소 설치

군사에 관련한 각종 법령이 반포되면서 신식 군대가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1895년 4월 조선 정부는 훈련대 2개 대대를 편성하였는데, 연말까지 6개 대대로 확대하였다. 또한 훈련대에 공병(工兵)·치중병(輜重兵)·마병(馬兵) 등 근대적인 편제를 마련하였다.

훈련대의 당시 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종을 알현한 조선 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근위병으로서 훈련대를 연대 규모로만 조직하되 2개 중대가 1개 대대, 2개 대대가 1개 연대가 되게 구성하며, 그 외 구체적인 것은 일본의 현행법에 따를 것”을 건의하였다. 훈련대의 편제에도 일본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식 군대인 훈련대를 설립하면서 이들을 훈련하고 지휘할 초급 무관의 양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조선 정부는 1895년 6월 8일 칙령 제90호 「육군무관진급령(陸軍武官進級令)」과 제91호 「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訓練隊士官養成所官制)」를 반포하였고, 이를 근거하여 근대적 무관 양성 기관을 설립하였다.²⁰⁾

20) 『고종실록』, 고종 32년 5월 16일.

사관양성소의 직원은 소장(所長) 1명[영관(領官)], 부관(副官) 1명 [위관(尉官)], 교관(教官) 11명[위관 3명 이상, 하사 8명 이하], 번역관 1명[주임], 주사(主事) 약간명[판임(判任)], 전어관(傳語官) 3명으로 구성되었다. 소장은 군부 군무국장에 예속되어 업무를 관리하고 학도 교육을 책임졌다. 부관은 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관양성소 사무를 맡아 처리했으며, 교관은 모두 무관으로, 학과(學科)와 술과(術科) 두 분과의 교육을 담당하였다.²¹⁾

초급 무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사관양성소 입학에는 나이나 신분의 제한이 없었다. 「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의 선발 규정에는 “학도는 귀천을 물론, 무릇 일반 백성 중 지원자를 모집하여 시험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무관은 품계와 급료가 다른 직종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신학문을 배울 수 있고 관료로도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배계층의 자제 중에서 우선 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²⁾

사관양성소에 입학한 학도는 학과와 술과의 양과(兩科)를 함께 배웠다. 그러나 수학 기간은 겨우 3개월에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초급 무관을 교육·양성하기에는 매우 짧았다. 그런데도 양성소를 수료한 자는 성적 순위에 따라 참위(參尉)²³⁾로 임용되었다. 다만, 수료한 후 무관 중 결원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 학술을 계속 배우도록 하였다.

21) 林在讚, 「訓練隊 士官養成所에 대한 一研究」, 『三土論文集』 제18집, 1984, 38쪽.

22) 林在讚, 위의 논문, 1984, 38쪽.

23) 현재의 소위 계급.

또한 학도 중 졸업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언제든지 퇴학을 명할 수 있었다. 소장은 매월 말 학도들의 고과표를 만들어 군부의 군부국장에게 보고하였고, 마지막 학기 말에는 군무국장이 소장, 부관 및 교관과 함께 마지막 고과표를 작성하여 순위를 가렸다.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였음에도, 당시 사관양성소의 수준은 속성으로 간부후보생을 교육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학도들에게 근대적 군사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교관 중 신식훈련을 받은 교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속성으로 무관을 배출하려는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²⁴⁾

게다가 소장, 부관, 주사, 교관 등 사관양성소의 소속 직원들이 군부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관양성소는 훈련대 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일개 부속기관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또한 당시 조선인 무관 중에는 신식 군대를 훈련할 수 있는 무관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무관을 초빙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선의 군사교관으로 초빙된 일본인 무관은 훈련대와 사관양성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한제국 무관학교 설립

청일전쟁에 이어 러시아까지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사관양성소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

24) 車文燮, 「舊韓末 陸軍 武官學校研究」, 『아세아연구』 제50호, 1973, 177쪽.

려웠다. 명성황후 시해 직후인 1895년 10월 22일 군부는 궁성의 경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부령 제3호 「궁성제수비병복무규정(宮城諸守備兵服務規程)」을 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했다. 아울러 을미사변에 개입하였던 훈련대를 폐지하고 새로운 군사조직 편성 계획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0월 30일 칙령 제169호 「훈련대폐지건(訓練隊廢止件)」과 칙령 제170호 「육군편제강령(陸軍編制綱領)」을 반포했다.²⁵⁾ 특히 아래에 인용한 「육군편제강령」은 새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군제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1조 국내 육군을 2종으로 나눈다[①친위(親衛) ②진위(鎭衛)]
- 제2조 친위는 경성에 주둔하여 왕성 수비를 전임한다
- 제3조 진위는 부(府) 혹은 군(郡)의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 지방 진무(地方鎭撫)와 변경 수비를 전임한다
- 제4조 각 위(衛)에 전술단위를 대대라 하되 각 대대는 4중대로 편성하고, 단 진위 대대는 아직 2중대로 편성한다
- 제5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²⁶⁾

「육군편제강령」에 따라 조선의 육군은 친위대와 진위대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친위대는 중앙군으로서 서울의 왕성 수비를, 진위대는 지방군으로서 전국 주요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25) 『고종실록』, 고종 32년 9월 13일.

26) 『일성록』, 고종 32년 9월 13일.

훈련대가 폐지됨에 따라 훈련대 사관양성소의 사관 양성 기능은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 1896년(건양 원년) 1월 11일 조선 정부는 「무관학교관제(武官學校官制)」를 공포하여 사관 양성 기능을 무관학교로 이전하였고, 훈련대 사관양성소를 폐지하였다.²⁷⁾ 이는 근대적 초급 무관 교육기관인 무관학교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관학교관제」를 토대로 하여 1896년 1월 15일 군부는 ‘학도 모집령’을 공포하고 무관학교 운영을 본격화하였다. 학도모집령은 ① 20~30세 남성, ② 신장이 5척 이상인 건강한 자, ③ 한문 사용이 가능한 자 등으로 지원자격을 규정하였다. 이 모집령은 이전과 달리 처음으로 나이에 제한을 두었으며, 신장의 제한 및 학과 시험을 위한 한문 교양도 요구하였다.

무관학교의 수학 기간은 1년이었다. 입교한 학도들은 모두 관비(官費) 학생으로서 1년 동안 별도의 수당[別費錢]을 받았다. 또한, 별도의 졸업시험이 있었으며, 성적 우수자는 조교로 임명되었다. 훈련대 사관양성소와는 달리 무관학교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도들의 퇴교요건도 관제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무관학교관제」가 반포된 지 한 달 만에 아관파천이 일어남에 따라 처음 설치되었던 무관학교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당시 정교(鄭喬)가 남긴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는 “경우궁

27) 『고종실록』, 고종 33년 11월 27일.

에 설치된 무관학교는 일본인 사관에 의해 학도들이 교육을 받았으나 아관파천 이후부터는 러시아인에 의해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⁸⁾ 요컨대, 처음 무관학교 설치 당시에는 일본인 교관이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아관파천 이후 일본 세력이 후퇴하면서 무관학교는 이름만 남아있다가 고종이 환궁한 후 러시아 교관이 교육을 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관파천 이후 무관학교에서는 러시아 군사고문 푸차타 대령의 주도하에 30여 명의 사관과 1,000여 명의 병사들이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았다.²⁹⁾

이처럼 조선의 신식군제 조직과 개편, 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은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적인 대립 속에 제대로 정착될 수 없었다. 당시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소관인들의 협잡 같은 일을 일체 없애고 무관 학도 100명을 선발하여 무관학교를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³⁰⁾

1898년 4월, 대한제국 정부는 「무관학교실시사청의서(武官學校實施事請議書)」를 올렸고, 5월에는 기존의 무관학교관제를 개정하였다. 그 결과, 7월 1일부터 개정된 관제에 따라 새로운 무관학교가 개설되었다. 즉, 무관학교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28) 『대한계년사』 상, 권2, 광무 원년 10월.

29) 車文燮, 앞의 논문, 1973, 180쪽.

30) 『독립신문』, 광무 2년 3월 31일.

무관학교관제 개정에 따라 직원편성부터 모집조건,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관제상 교관은 처음 4명에서 10명으로까지 늘어났으며, 조교(助教) 역시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지원자격은 나이를 18~27세로 낮추고, 신장을 묻지 않는 대신 건강하고 총명한 자를 선발하기로 개정하여 이전보다는 완화되었다. 다만, 자원(自願)으로 입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장(將), 영(領), 위관(尉官)이나 직임관(勅任官)의 추천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발 규정 자체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³¹⁾

수학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과정은 3개 과(課)로 나누어 1과와 2과는 속성과(速成科), 3과는 졸업과(卒業科)로 운영하였다. 다만, 속성과에는 연한 규정은 없었는데, 이는 당시 근대식 군대가 증원되는 과도기적 시기였던 만큼 초급 무관의 수요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조치였다. 즉, 정규 무관 이외의 속성과를 설치하여 무관의 충원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이러한 무관학교의 개편 및 정상화는 관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5년 10월 「육군편제강령」에 따라 조선의 군대는 친위대와 진위대로 개편되었다. 중앙군인 친위대는 3개 대대가 친위연대로 편성되었으며, 병종도 공병대, 마병대, 치중대 등 다양화되었다. 1898년 5월에는 친위 4, 5대대가

31) 車文燮, 앞의 논문, 182~183쪽.

32) 車文燮, 위의 논문, 183~1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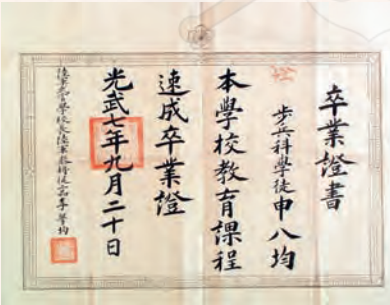
시위연대로 편성되면서 중앙군은 2개 연대로 늘어났다. 지방군인 진위대도 훈련대 폐지 이후 평양부와 전주부에 각각 1개 대대가 설치되었으나 이후 2개 진위대와 14개 지방대로 편제되는 등 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수적으로 증가한 중앙군과 지방군 부대를 지휘하고 교육할 초급 무관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무관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준영이 썼던 대한제국군 시위대 참위 모자와 참위 건장

© 독립기념관



신팔균 무관학교 보병과 졸업증서(1903.9)와 참위 당시 모습

© 독립기념관

「강령」과 「교칙」 수립

1896년(건양 원년) 정월에 설립된 무관학교는 1909년(융희 3년) 9월에 폐교될 때까지 약 13년간 운영되었다. 육군무관학교를 설치할 당시에는 러·일 간의 정치·외교적 대립과 아관파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육군무관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시기는 러시아공사관에서 고종이 환궁한 1897년 이후부터였다. 1898년 7월 다시 개설한 육군무관학교는 1900년(광무 4년) 1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무관 교육을 본격화하였다.

육군무관학교의 교육은 신식 군대 훈련과 지휘를 담당할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무관학교는 「육군무관학교 교육강령(陸軍武官學校 教育綱領)」(이하 「교육강령」)에서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총 11조로 구성된 「교육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 쪽 [읽기자료] 참조).

육군무관학교 교육강령

제1조 무관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도로 하여금 초급 무관이 되는 데 필요한 학술(學術)을 배우게 하여 후일(他日) 독학자습(獨學自習)에 모를지기 필요한[須要] 소양(素養)을 교수(教授)하는 데 있다.

제2조 곤란급극(困難急劇)한 때와 분규착난(紛糾錯難)한 때를 당해도 능히 이를 적요(適要)하게 처리함은 군인만 한 자가 없으나 무릇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군사(軍事)의 진보가 저대(著大)하고 군무(軍務)의 다단(多端)함이 옛날(昔日)에 비하면 더욱 깊어졌으니[尤甚] 이런 까닭에 장교(將校)는 군기(軍紀)를 유지하고 단대(團隊)를 규합하여 임기응변함에 더욱 정확한 학식과 민활(敏活)한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성하는 법이 더욱 한없이 많고 복잡(浩瀚複雜)한지라 짧은 기간 동안 장교의 본분에 필요한 제반의 군사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무관학교의 교육은 주로 초급 무관에 꼭 필요한[不可無] 기본 학술을 가르쳐 고상견확(高尚堅確)한 성품을 양성하고 아울러 장래 장교단의 교육을 받으며 혹 각과의 전문학교[諸科專門學校]에 들어가며, 혹은 독학자수(獨學自修)함으로써 고등학술을 연구할 수 있는 소질을 갖추어 후일 대성의 자격에 이르게 함이 정도(程度)이다.

제3조 일과 학업은 번간도(繁簡度)를 적절하게 배당하되 일과 학업의 묘를 얻기 위하여 강습의 순서를 정하여 시습(時習)과 연구와 학리의 요지를 소화하여 응용의 묘미를 요득(了得)하게 하며 장래 시일

이 경과하여 설혹 매우 작은 사항[瑣末]을 망각하더라도 이를 능히 활용하도록 습득하게 함이 중요하다.

제4조 무관학교의 교육은 교수(教授)와 훈육(訓育)을 실시하되 교과목은 전술학, 군제학, 병기학, 축성학, 지형학, 외국어학(불·독·영·청·노·일), 군인위생학 및 마학(馬學)이며, 훈육과목은 교련, 마술(馬術), 체조 및 검술, 군용문장 및 제근무(諸勤務)의 훈회(訓誨)이다.

제5조 교관이 교수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밝혀 마음속으로 요득(了得)하게 하고 후일 실시에 착오가 없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으므로 교관은 마땅히 학도의 소양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훈지도 하고 활발한 기력을 보유(保維)하여 주밀(周密)히 학리(學理)를 완색(斲索)하고 감위(敢爲)한 정신과 확실한 학식을 양성하여 그 응용력의 발달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는 학과강수(學科講授)와 응용작업의 두 종류로 나누어 강의하되 학과는 현유(玄幽)한 이론은 피하고 간명적실(簡明適實)한 첩경(捷徑)을 취해야 하며, 또 실물과 모범(模範)·도화(圖畫) 등으로 강설(講說)의 명료와 이해의 정확을 기하여 학도의 머리 속에 담기도록 해야 하며, 또 응용작업은 학도의 재능에 따라 이미 배운 학과 범위 내에서 과제를 정하여 완급소요(緩急所要)한 지도를 하고 학도는 자근연구(自勤研究)하여 이미 얻은 학식을 응용하고 천품(天稟)의 타고난 재능[良能]을 발휘하여 정당하게 학리를 활용하는 길을 알게 하고 순차로 이미 배운 학술을 들어 이를 실제 응용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소양을

연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르기 위하여 교관은 학도가 작성한 응용작업의 답안을 수정·강평하거나, 기타 만반 기회를 겸하여 수사(修辭)와 속문(屬文)의 세밀한 것이라도 역시 이를 교정수치(矯正修治)해야 하고 필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 지적하여 시켜서 사상의 연격(連擊)을 잃어 이해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본교의 훈육은 학도들이 이미 수학한 여러 과목을 교정증보(矯正增補)하여 초급사관된 자가 실제 소부대를 교도지휘(教導指揮)할 능력을 양성하는 데 있으므로, 조련을 겸하여 무술학 강습을 비보(裨補)하고 또 기술과 함께 학도의 체육에 적합하게 전학기(全學期) 간을 나누어 교육하되 초급사관됨에 족한 기능을 연성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장교의 적부(適否)는 학식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견고한 군인정신으로 학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학도에게 항상 덕의(德義)를 장려하고 정기를 고무하여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본의(本義)를 양성하여 군인의 지조를 도치성장(陶冶成長)하도록 한다. 또한, 군의 주된 임무는 전투이기 때문에 군사학 교육에 있어서는 전투 동작에 알맞은 정도(適度)의 독단전행(獨斷專行)을 허용하여 공격 정신의 발달을 장진(獎進)하며 지휘 통일 동작의 공동을 요구하여 그 성공을 완전케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교의 교수 및 훈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의를 실행하여 활발유위(活潑有爲)한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

제8조 훈육의 주도(周到) 감독의 보급을 위하여 군사학 교수는 전학도(全學徒)를 여러 반으로 구분한다. 각 국어학은 그 학력 및 인원 다과(多寡)에 의하여 수 개의 학반으로 나눈다.

제9조 각 병과 학도는 각 중대에 분배하여 동화자양(同化資養)함이 마땅하나 술과(術科) 교련 시에는 각 병과를 구분하여 중대 혹은 소대에 편성해야 하고 또한 체조·검술 및 승마에는 교육반을 구분하여 이를 교호(交互)해야 한다.

제10조 학술교수 시간은 여름(夏期)에는 매일 5·6시간, 겨울(冬期)에는 4·5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제11조 학리의 해석과 응용의 식별능력[識力]을 검정(檢定)하여 교육의 짐작(斟酌) 및 고과조제(考課調製)의 재과(材料)에 사용[供]하기 위하여 시시(時時)로 시험을 행한다. 시험의 평점은 매 한 과목에 0점부터 20점까지로 그 우열을 판단하며, 궁행(躬行)의 평점도 또한 이에 준한다.

「교육강령」은 크게 다섯 가지 강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학도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한 강령(제1조~제4조), ② 교관이 지켜야 할 강령(제5조, 제6조) ③ 군인정신 강조(제7조), ④ 교육을 위한 반 편성 규정(제8조, 제9조) ⑤ 교육시간 및 시험 규정(제10조, 제11조). ①~⑤의 각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강령」은 초급 무관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목적, 방법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도들의 특성에 따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근대적 교육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강령」을 기반으로 하여 1900년 4월 무관학교장을 겸하였던 이학균(李學均)은 학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인 「육군무관학교 교칙(陸軍武官學校 教則)」(이하 「교칙」)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교칙」은 ① 강령, ② 학술교수 구분(學術教授 區分), ③ 편성 및 학반, ④ 시험, ⑤ 시험평가의 총 5개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칙」은 ‘강령’ 부분에서 “초급 무관 양성에 필요한 군사상의 학술을 강습하기 위하여 그 정도의 교칙을 계획하고 교육방법 및 순서를 정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교칙」은 무관학교 교육의 중요 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앞선 「교육강령」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었다.

「교칙」에서는 학도 교육을 위한 학술교수를 학과(學科)·응용작업(應用作業)·술과(術科)·기술(技術)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학과와 응용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강의과목과 강의횟수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학과 과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육군무관학교 학과 과목 강의횟수³³⁾

구분	과목	강의횟수	백분율
학과	전술학	85회 이상	18%
	군제학	20회 이상 (단, 전술학 강의 시 겸행)	4%
	병기학	70회 이상	14%
	축성학	50회 이상	10%
	지형학	40회 이상	8%
	위생학	15회 이상	3%
	마학	15회 이상	3%
	외국어학	200회 이상	40%
총계	8과목	495회	100%

우선, 학과 과목부터 살펴보자. 학과는 전술학, 군제학, 병기학, 축성학, 지형학, 위생학, 마학, 외국어학 등 총 8개의 과목이 있었다. 그리고 위의 표와 같이 과목마다 강의횟수도 규정하였다. 육군무관학교에서 교육했던 8개 과목의 강의횟수를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각 과목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학과 과목들 가운데 강의횟수의 비중이 가장 컸던 과목은 외국어학이었다.

33) 車文燮, 앞의 논문, 1973, 194쪽; 林在讚, 「舊韓末 陸軍武官學校의 軍事教範」, 『三士論文集』 제29집, 1989, 157쪽 표1 참조.

그런데 육군무관학교에서 외국어학 교육의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이 학교 설립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일까? 당시 국제정세상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육군무관학교의 외국어학 강의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육영공원이 폐교되었던 1894년 이후부터 1901년까지 정부가 배재학당에 영어교육을 위탁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육군무관학교가 순수 외국어 교육에 전체 강의시간 중 40%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외국어학의 비중이 40%나 차지했을까? 이는 교과교재와 관련이 있다. 육군무관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를 고려한다면 무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전술학, 군제학, 병기학 등 군사학 관련 과목들이다. 그런데 무관학교는 설립되기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된 군사교범이 한 권도 없었다. 따라서 앞선 「교육강령」 제4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불·독·영·청·노·일 등 6개 외국어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보면, 대한제국 정부 차원에서 발간했던 군사교범이 발간되기 이전에 어떠한 저서들을 교육에 활용하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거를 1902년에 발간된 「전술학교정(戰術學教程)」의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술학교정」은 프랑스,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외국 서적을 참고하였다. 요컨대, 아직 대한제국의 군사교범이 정식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어학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순수하게 외국어학을 교육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군사학 관련 저서를 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번에는 이 과목들을 다시 군사학(軍事學)과 비군사학 분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군사학 과목 7개(전술학, 군제학, 병기학, 축성학, 지형학, 위생학, 마학)와 비군사학 분야 외국어학은 총 60%와 40%의 비율로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국어학은 군사학 교육을 위한 보조적인 교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 과목은 군사학 교육을 위한 강의시간이 할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별 과목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전술학은 학도들이 전술의 원칙을 배워 그 응용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전사(戰史)를 통해 전술의 원칙을 조명하고 강습을 내실이 있게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또한 전술 강의의 이해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① 각 병종의 조련, ② 야외연습, ③ 응용작업[군사배치(兵棋) 및 도상전술(圖上戰術)], ④ 야외전술 실시 등을 강습하였다.

군제학의 강의는 우리나라 군제의 연혁과 평시나 전시의 군대편제 및 동원·보충·경리 및 상벌·군법회의의 구성 등을 교육하였다.

병기학은 다양한 병종의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폭약의 성질과 탄도(彈道)의 형상(形狀), 그리고 군에서 사용

하던 총포의 구조와 탄환의 효력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야전이나 요새전에서 병기의 용법을 습득하게 하였다. 그리고 병기학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병기 및 모범(模範)의 실제 견학, 포병기계와 화약제조소 및 병기창 견학, 대포제조법 등을 실습하게 하였다.

축성학은 임시축성과 영구축성뿐만 아니라 축성과 관련된 교통학도 포함하여 교육하였다. 임시축성은 그 소질(素質)과 구조법(構造法) 및 진지의 편성 등 응용 교수의 방침을 세워 학도들이 장래 근무(勤務)에 필요한 능력을 양성하게 하였다. 영구축성으로는 그 특징과 성채의 편성, 공수 및 해안방어의 큰 틀을 강의하였다. 교통학은 도로·교량·철도 및 전신의 개요를 강의하였다. 아울러 축성학의 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① 작업 및 임시축성물의 견학, ② 요새 및 모범의 견학, ③ 응용작업 등을 병행하는 학습을 하게 하였다.

지형학은 지형의 간단한 설명(略說)과 지도 해석(見解), 측도법(測圖法) 및 군사상 지형 관계를 교육하였다. 이를 위해 지형학 및 전술학 교관은 항상 상호 연계하여 전술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학도가 군사 목적에 필요한 제도기술(製圖技術)을 익히고, 자기가 배운 능력을 활용하여 각국의 지도도 독해하는 데 있었다. 측량에서는 각종 측도법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약도(略圖) 제작을 교육하였다. 특히 약도제작은 적(敵)

앞에서 직접 눈으로 계산[目算]하여 신속히 지형을 베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외연습과 측도 연습 사이에 수차례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① 지형묘법(地形描法), ② 측도 기계 사용법, ③ 정 측도(正測圖), ④ 약측(略測) 등 보조적인 수업으로 지형학을 완전하게 습득하게 하였다.

전술학·군제학·병기학·축성학·지형학 등의 5개 과목은 「교칙」 제16조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어야 하며 또한 그 교수법은 초급 무관 양성의 목적에 따라 번거롭고 자질구레함[繁冗]을 피하고 간단명료함을 취하여 실용적인 기량을 얻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이외에도 위생학과 마학은 전체 강의횟수에서 각각 3%를 차지하는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군인위생의 큰 틀과 승마장교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였다.

단일 과목으로 비중이 제일 높았던 외국어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국어를 교육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군사학 관련 서적을 독해하기 위한 언어를 위주로 교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칙」 제22조와 같이 “외국어학은 군사학술 연구를 이롭게 하고 교제용의 단어를 구술 혹은 필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3절 군사교범의 편찬, 근대 군사교육의 초석이 되다

군사교범 편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전까지 20여 년 동안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군사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군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였으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훈련체제와 군사교리가 잘 반영된 군사교범이 필요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다양한 군사교범을 편찬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표 3]은 당시 편찬된 것 중에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학과 과목에 사용된 군사교범들이다.

[표 3] 육군무관학교 군사교범 종류

학과	과목	군사교범
전술학	전술학	보병조전(步兵操典), 전술학교정(戰術學教程), 야전요령(野戰要務令), 보병공작교범(步兵工作教範)
	축성학	축성학교정(築城學教程)
	군제학	군제학(軍制學)
화기학	병기학	병기학교정(兵器學教程), 사격교범(射擊教範), 보병사격교범(步兵射擊教範)
학술학	지형학	지형학교정(地形學教程)
	위생학	위생학교정(衛生學教程)
	마학	마학교정(馬學教程)
총계	7과목	12권

[표 3]을 통해 확인되듯이 학과 교육에 사용된 군사교범은 전술학 6권, 화기학 3권, 학술학 3권으로 총 7과목 12권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술학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만큼 많은 군사교범이 활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전술학 과목에서 사용되었던 군사교범 가운데 기초교육 교재였던 「보병조전」과 교육 비중이 높았던 전술학 과목의 교재인 「전술학교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대 기초군사 훈련 - 「보병조전」³⁴⁾

1898년 3월 러시아 교관들은 해임되어 귀국하였다. 이후 대한 제국은 교관들이 장령들을 훈련할 수 있게 군사교범을 편찬하였다. 「보병조전」은 1898년 8월 12일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보병조전」표지에 ‘개정 제1호’라고 인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앞서 간행된 「보병조전」이 존재했고 그것을 개정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병조전」은 크게 총칙과 제1부 기본교련, 제2부 전투, 부록 등 총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 4]는 책의 목차를 세부 소절까지 정리한 것이다. 책의 전문은 아니지만, 소절까지의 제목으로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4) 「보병조전」의 원문은 디지털 장서각(<https://jsg.aks.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보병조전」 목차

구분	장	절	소절
총칙			
제1부 기본 교련	제1장 각개교련 (各個教鍊)	총칙	
		도수교련 (徒手教鍊)	부동자세, 전회(轉回), 행진(行進)
		집총교련 (執銃教鍊)	총의 조법(操法), 총창의 착탈(着脫), 장진(裝填), 단환추출(彈丸抽出), 사격, 집총행진, 습보(襲步)
		산병교련 (散兵教鍊)	행진 및 정지, 사격
	제2장 소대교련 (小隊教鍊)	총칙	
		밀집대차 (密集隊次)	소대의 편제, 정돈, 소대의 배면향(背面向), 총의 배면향, 총의 조법 및 총창의 착탈, 결총 및 해총, 장진, 사격, 횡대의 정면행진, 사행진(斜行進), 구보(驅步) 습보, 소대의 정지, 행진간의 배면향, 퇴보, 방향변환, 측면행진, 측면행진간 오(伍)의 분해 및 중복, 오오(伍伍)방향변환, 정지 및 정면향, 행진간 우(좌)향, 측면중대로 횡대와 횡대로 측면중대에 이전(移轉), 이열(二列)로 일열(一列)과 일열로 이열에 이전, 해열(解列) 및 취립(聚立)
		산개대차 (散開隊次)	산개, 산병선(散兵線)의 운동, 산병선의 사격, 취립 및 병(併)취립
	제3장 중대교련 (中隊教鍊)	총칙	
		밀집대차	횡대의 편제 및 구분, 정돈, 배면향, 총의 조법, 횡대의 운동, 측면중대(側面縱隊), 중대중대(中隊縱隊)의 편제, 횡대로 중대중대에 이전, 반중중대(半中縱隊)의 편제, 중대중대와 반중중대로 횡대이전, 중대중대로 반중중대와 반중중대로 중대중대에 이전, 측면중대로 중대중대 및 반중중대와 중대중대 및

			반중중대로 측면중대에 이전, 중대중대 및 반중중대의 운동, 방침, 사격
		산개대차	산개 및 산병선의 운동, 사격, 산병선의 증가, 원대(援隊), 돌격, 취립 및 병취립
	제4장 대대교련 (大隊教練)	총칙	
		대대의 기본대형	정돈, 총의 조법, 일(-)의 대형으로 타대형에 이전, 동일 대형으로 간격거리(間隔距離)에 개폐(開閉), 기본대형의 운동, 전투전개
	제5장 연대교련 (聯隊教練)	총칙	
			연대의 취립대형, 취립대형의 운동, 전투전개
제6장 여단교련 (旅團教練)	총칙		
		여단의 취립대형, 취립대형의 운동, 전투전개	
제2부 전투	서언(緒言)		
	제1장 보통원칙 (普通原則)		연병장의 효용, 산개대차 및 밀집대차, 산개전투, 여러 병종에 대한 동작, 공구의 사용, 전투 간 지휘관 및 병졸의 동작, 전투정명 및 제대(梯隊)구분, 공격 및 방어
	제2장 부대전투 (部隊戰鬪)		중대전투, 대대전투, 연대전투. 여단전투
	제3장 결론		
부록			군기(軍旗)의 영송(迎送), 군기의 봉지법(捧持法), 군도의 지방(持方)

[표 4]에서 보면, 「보병조전」은 ‘2부(총칙·부록 제외)-9장-8절-88소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표 4]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각 소절은 총 367개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367개의 세부 항목을 각부별로 구분하면, 총칙에 8개, 제1부 기본교련에는 220개, 제2부 전투에는 125개, 부록에는 14개 항목이 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총칙은 2%, 제1부는 기본교련은 60%, 제2부는 전투는 34%, 부록은 4%를 차지한다.

그런데 전체 비율로 보면 제1부 기본교련에는 제2부 전투보다 약 1.76배 많은 항목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병조전」이 전투를 중시한 교범이기보다는 병사들의 기본훈련 동작인 제식훈련에 중점을 둔 교범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군 훈련장면 ©독립기념관

이어서 「보병조전」 각 부의 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자.³⁵⁾ 우선 제1부 기본교련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제1장 각개교련, 제2장 소대교련 및 제3장 중대교련은 도수교련, 집총교련, 산병교련, 밀집대차, 산개대차 등 각 단위에 맞추어 교련 내용을 세부화하였다. 반면,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대대-연대-여단 교련은 내용이 비교적 소략하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군의 기본 편제단위가 중대급 규모까지 편제·운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제1부 기본교련의 제1장 각개교련 중 도수교련은 1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부동자세, 방향전환, 이동 관련 기본 자세와 구령 등이 설명되어있는데, 현재 국군의 제식훈련에도 사용되는 ‘좌향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등의 구령이 당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2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집총교련은 도수교련을 숙달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총기 휴대법, 총검 탈착, 실탄 장전 및 추출, 사격 등 총기 관련 동작과 구령이 기술되어 있다. ‘받들어 총’, ‘세워 총’과 같이 현재에도 익숙한 구령들이 당시부터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병교련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병(新兵)이 산개 동작

35) 「보병조전」의 주요 내용은 徐仁漢, 「大韓帝國 軍事訓練 體系에 대한 一考察 - 《步兵操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33, 1996 참조.

36) 徐仁漢, 위의 논문, 1996, 247쪽.

과 지형을 이용하여 행진·정지·사격하는 방법을 숙달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제2장 소대교련은 중대교련의 일부로, 중대가 편입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따라서 부대를 밀집대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인 밀집대차와 산개대형으로 흩어지는 산개대차, 관련된 소대의 편제부터 소대 단위로 이루어지는 동작, 산병의 행동요령과 관련된 구령 등을 숙달시키는 세부 항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부대편성 기본단위가 중대였기 때문에 중대를 구성하는 하위 단위인 소대의 교련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제3장 중대교련도 소대교련과 마찬가지로 중대 단위의 밀집대차와 산개대차에 관련된 세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소대교련의 밀집대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중대횡대’, ‘중대종대’, ‘반중종대’와 같은 대형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중대교련의 산개대차는 소대교련의 산개대차를 숙달시키는 것이 기본목적이었기 때문에 소대교련의 산개대차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³⁷⁾

제4장 대대교련은 대대 간 기본대형의 이동과 전투 전개에 관해 다루고 있다. 5개 중대를 1대대로 편성하는 대대의 기본대형은 ‘중복종대’, ‘대대종대’, ‘중대횡대’와 같은 3가지 대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1개 중대를 4개 소대로 편성하는 것이나 1개 대대를

37) 徐仁漢, 앞의 논문, 1996, 248~249쪽.

5개 중대로 편성하는 것은 러시아식 군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보병조전」은 러시아 교관단이 국내 체류 중일 때이거나 귀국 직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⁸⁾

또한, 대대교련에는 전투 전개에 관한 항목이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투선으로 전개할 때에는 대대장의 지휘에 따라 중대 단위로 축차적으로 투입하고 잔여 부대를 예비대로 운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에게는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5개 중대를 일시에 전투선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되었다. 대대교련에는 전투 대형의 이동·방향전환, 예비대 운용 원칙 등도 언급되어 있다.³⁹⁾

제5장 연대교련, 제6장 여단교련 부분은 분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주로 대대별·연대별 정렬방법, 전투 전개에서 대대와 연대의 운용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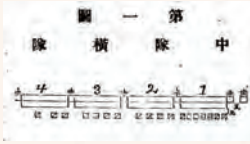
제2부 전투는 실제 전투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그중 제2장 부대전투 부분에서는 중대전투·대대전투·연대전투·여단전투의 제대별 특징을 언급하고 대대장·연대장·여단장의 임무와 역할을 상술하였다.⁴¹⁾

38) 徐仁漢, 앞의 논문, 1996, 249~2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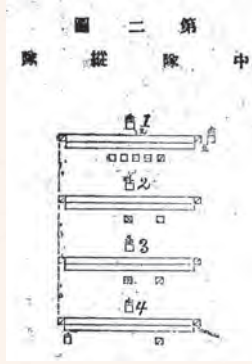
39) 「보병조전」, 162~163면.

40) 「보병조전」, 165~176면.

41) 「보병조전」, 177~286면.



중대횡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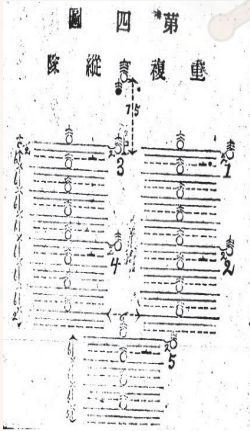


중대중대



반중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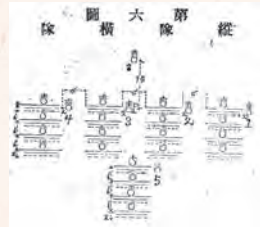
© 「보병조전」, 110, 116, 120면



중복중대



대대중대



중대횡대

© 「보병조전」, 147, 149, 150면

근대 전술 원칙 - 「전술학교정」⁴²⁾

1902년(광무 6) 대한제국 군부 편찬 교과서인 「전술학교정」은 3권, 13편, 49장, 및 부록 4편의 총 48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학교정」은 육군무관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1902년 출간되었는데, 당시 여러 외국의 전술학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학교정」 권3의 서문의 참고서적의 목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독일·일본·오스트리아의 전술학 교과서들을 많이 참고하여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³⁾

그러면 「전술학교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⁴⁴⁾

「전술학교정」 권1은 용병학, 전술학의 개념과 각 병종의 성능 및 전술, 병종의 연합, 명령과 보고 등 현재의 전술학 개념이나 교리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편 용병 부분에서는 전쟁의 목적과 용병 시 공격과 방어의

42) 「전술학교정」 중 3권의 원문은 디지털 장서각(<https://jsg.aks.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번역본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군사연구소가 발간하였다(김원권 편역, 『전술학교정』 상·하, 국방군사연구소, 1999; 육군군사연구소, 『전술학교정 : 광무6년 제1판 : 한글본 :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범 1-3권』,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21).

43) 참고서적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불국성서이병학교전술학교정(佛國聖西爾兵學校戰術學教程)』 ②『기본전술(일본국육군대학독본)[基本戰術(日本國陸軍大學讀本)]』 ③『덕국전술학교정(德國戰術學教程)』 ④『덕국전략학(德國戰略學)』 ⑤『덕국육군사관학교전술교정(德國陸軍士官學校戰術教程)』 ⑥『수병술(일본국육군대학교용)[帥兵術(日本國陸軍大學교용)]』 ⑦『오국육군사관학교전술학교정(澳國陸軍士官學校戰術學教程)』

44) 「전술학교정」의 주요 내용은 林在讚, 「舊韓末 陸軍武官學校의 軍事教範」, 『三士論文集』 제29집, 1989 참조.

이점 등을 서술하였다. 또한, 전쟁의 목적을 정략적 차원과 군사상의 한계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당시 전쟁을 육전과 해전으로 구분하고 육전을 다시 야전과 요새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제1편의 특징이다.

제2편 전술학 부분은 전투의 종류, 밀집대형 및 산개대형, 각 병종의 성능을 기술하고 있다. 전술학 총론에서는 전술학을 부대의 운용, 즉 행군과 주둔 그리고 전투의 방법과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전술학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급장교에게 필수인 전술의 기본과 응용할 기초사항 정도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술학에서는 전투의 종류를 크게 원전(遠戰)과 접전(接戰)의 두 종류로 구별하였다. 그 수행방법으로는 밀집과 산개의 두 가지 대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전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병종을 보병, 기병, 야전포병, 공병 등으로 전투 수행 병종을 구분하여 병종별 특징과 기본 운용방법을 언급하였다.

제3편은 각 병종의 전술에 관한 것으로 보병전술, 기병전술, 포병전술로 구분하여 각 병종의 편제, 대형, 전투, 병종 간의 협조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상세하고 다루고 있다. 보병부대는 기본적으로 4개 소대(1개 분대는 13~16명)를 중대, 4~5개 중대를 대대, 2~3개 대대를 연대, 2개 연대를 여단으로 편성하되 편제를

융통성 있게 조절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병의 행군속도, 밀집대형, 산개대형, 각 부대 단위의 전투 전개 방식, 전투방법(총격전, 백병전), 보병의 대기병·포병 전투 등도 기술하였다.



대한제국군 훈련장면

© 독립기념관

기병전술은 기본적으로 4개 소대를 중대, 3~4개 중대를 기병대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편제에 관해서 유럽선진국의 사례도 소개하면서 기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독일·러시아·프랑스는 4개

중대로, 오스트리아·이탈리아는 6개 중대로 연대를 편성하며, 이들 국가는 대부분 2~3개 연대로 여단을, 그리고 2~3대 여단으로 사단을 편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병은 기동력을 이용한 습격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밀집습격과 산개습격의 전투방법, 기병의 대기병·보병·포병에 대한 작전 수행 내용을 기술하였다.

포병부대는 2개 소대로 중대를, 2개 중대로 대대를, 야포병(野砲兵) 2개 대대 및 산포병(山砲兵) 1개 대대(근위에서는 야포병 2개 대대)로 연대를 편제한다고 서술하였다. 포병부대에서는 산포병과 야포병 중대(3개)를 포차대, 제1단렬(段列) 및 제2단렬로 구분하고 포차대와 제1단렬을 합친 것을 전포대(戰砲隊)라고 하였다. 포병부대의 전투는 화포를 이용한 사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격의 효과는 시험사격의 적부(適否)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거리측정에 기초한 탄착의 원근(遠近)을 관측하여 적절히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포병부대의 화포 방렬 배치와 관련하여 진지 선정의 중요성, 엄호병력의 활용, 공격과 방어원칙에 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4편은 여러 병종의 연합에 관해 다루고 있다. 총론에서는 여러 병과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병과는 작전 간에 장단점을 상호보완하고, 완급 등으로 상부상조하며, 각자 본분을 다하여 전투에서 승리를 기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병력과 병과가 상호 간에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보병이 기병·포병과 연합할 경우, 기병이 보병·포병과 연합할 경우 등에 대한 방법을 수록하였다.

제5편은 명령 및 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명령의 종류(작전명령, 일일명령, 훈령)와 보고(훈령 포함)의 전달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명령과 보고는 간단명료해야 하며 서명과 장소, 일시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시 상황, 거리, 시간 등의 제약을 받을 때는 전신이나 구두로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6편은 행군과 병력 주둔, 수색과 경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원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제7편은 수색근무에 관한 내용으로, 기동성이 좋은 기병을 활용한 수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척후의 임무도 서술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기병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지형에 따라 보병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8편은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본대의 전투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한 경계근무에 관련된 임무와 역할을, 제9편은 행군 속도, 행군 대형 등 부대의 행군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제10편은 군대가 일정 지역에 머무를 때 관련된 사항인 주군(駐軍)의 종류와 주의사항 등을 서술하였다. 즉, 제7~제10편까지는 부대가 전투 이전에 해야 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11~제13편은 각각 전투, 국지전, 특별 동작에 관한 내용이다.

제11편 전투 부분은 전투의 공수, 공격과 방어 요령, 전투 지휘 요령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공격과 방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지속전은 부과된 임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12편 국지전은 고지전(高地戰), 곡지전(谷地戰), 삼림과 주민지(住民地)의 전투, 좁은 지역(隘地)의 전투, 하천 전투 등을 언급하고 있다. 전쟁의 일반 원칙은 어떠한 시기와 지형이든지 다를 것이 없지만 국지(局地) 곧 지상의 물체(고지, 곡지, 촌락, 삼림, 애지 등)는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는 전투를 일컬어 국지전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국지전에서는 보병이 주요 임무를 맡으며, 기병은 전투 후에 국지의 측방 지원, 포병은 장애물 파괴, 공병은 공사작업 등 각각 맡은 임무가 다르다고 하였다.

「전술학교정」의 제일 마지막인 제13편은 특별 동작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주로 기습, 배후교통로 엄호 및 파괴, 전장에서 공사의 엄호, 치중의 호위 및 공격, 징발, 별동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특별 동작이란 일반적으로 본작전(本作戰)과 동시에 소부대가 행하는 특별한 동작을 말하는 것으로, 대결전을 피하고 오로지 작은 결과를 여러 번 쌓아 본작전을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전술학교정」은 전투를 수행할 때 군대가 작전, 전역, 전투, 교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동지침으로, 군사교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술학교정」은 각 병종에 따라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공통된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술학교정」은 근대적 군대로 체질 변화를 꾀하였던 대한제국군에게는 필수적이었다.





군사교범, 근대군사교육의 시작

제2장

독립군의 군사교범



...



제2장 독립군의 군사교범

1910년 국권을 빼앗기자 국내에서 항일투쟁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병과 신민회 등 뜻있는 지사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독립군 양성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립군 양성계획은 국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해외에 건립된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실행되었다. 만주와 연해주는 1860년대부터, 미주 지역은 1900년대부터 한인사회가 건립되었다. 1910년 국권이 침탈된 후 적지 않은 한인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910~1912년에만 해도 만주로 이주한 한인의 수는 49,772명에 달했다.⁴⁵⁾ 해외의 한인들은 나라를 빼앗긴 국난의 위기를 좌시하지 않고 국권 회복 운동에 동참하여 독립자금 모금과 독립군 양성을 지원하였다.

해외의 독립군 양성계획이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대전(大甸)학교(일명 동림무관학교), 북일중학교,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미주 지역의 대조선국민군단과 그 전신인 소년병학교 등이 있다. 이들 학교는 서구의 근대적인 군사교육체제를 도입하여 항일독립투쟁에 필요한 실질적인 군사역량을 갖춘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신흥무관학교와 사관연성소의 군사교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45)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아세아문화사, 1999, 28쪽.

제1절 신흥무관학교, 전투를 연구하다

서간도 한인이주와 독립군 기지건설

우리 근대역사에서 많이 듣게 되는 지역의 이름으로 간도(間島)가 있다. 간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워 국내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 19세기 말부터 이미 많은 한인이 이주하여 정착촌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조상들이 활동하였던 친밀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의 기지건설에 유리한 후보지로 인식되었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신민회는 해외에서 독립군 창건과 기지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09년 국내에서 더는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신민회는 양기탁(梁起鐸, 1871~1938)의 집에서 전국 간부 회의를 열어 해외 독립기지 건설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군사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항일투쟁에 활용할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하기로 결의하였다.⁴⁶⁾

1909년부터 1910년 하반기까지 1년간 신민회는 무관학교 설립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답사조를 파견하였다. 그중 이회영(李會榮, 1867~1932), 이동녕(李東寧, 1869~1940) 등이 답

46) 신용하, 「신민회의 독립군 기지 창건운동」, 『한국문화』 4, 1983, 91쪽.

사한 유하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9월부터 이들은 독립군 기지건설을 위한 집단이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⁴⁷⁾

이회영은 자신의 형제 건영(健榮)·석영(石榮)·철영(哲榮)·시영(始榮)·호영(護榮)에게 국외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회영과 형제들은 뜻을 모아 1910년 음력 12월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이주하였다.⁴⁸⁾ 일본 군경의 삼엄한 감시 속에 이회영의 6형제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안동의 유림을 비롯한 각 지역 유지의 서간도 이주도 이어졌다.



47) 신용하, 앞의 논문, 1983, 97쪽.

48)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35-38쪽.



간도는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서 중국 길림(吉林)성 남부까지의 지역을 일컫는다. 이 지역은 대체로 미개척지가 많아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새로 개간하였다는 의미에서 간도(墾島)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오지였던 이 지역을 조선인들이 개간하여 정착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간도는 서쪽과 동쪽을 구분하는데 서쪽은 ‘서간도’라고 부르지만, 동쪽의 간도를 지칭하는 ‘동간도’는 ‘북간도’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북간도는 인접 지역인 함경도 농민의 이주가 많았고, 서간도는 평안도와 함경도 국경 거주자의 이주가 많았다.

이동녕, 이장녕(李章寧, 1881~1932), 이상룡(李祥龍, 1858~1932), 김대락(金大洛, 1845~1914), 주진수(朱鎭洙, 1878~1936), 김창환(金昌煥, 1872~1937), 장유순(張裕淳, 1877~1952), 이관직(李觀植, 1882~1972), 윤기섭(尹琦燮, 1881~1959), 여준(呂準, 1862~1932), 김동삼(金東三, 1878~1937) 등이 가족 혹은 문중 일가를 이끌고 서간도로 이주하여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鄒家街)를 중심으로 신한민촌(新韓民村)을 건설하였다.⁴⁹⁾

1911년~1912년 사이에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 사람들의 서간도 이주가 대거 진행되자 조선총독부는 한인의 집단이주가 신민회와 관련 있다고 보고 ‘안명근(安明根, 1879~1927) 사건’, ‘양기탁 등의 보안법 위반사건’이나 조선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105인 사건’ 등을 조작하여 신민회를 탄압하였다.⁵⁰⁾ 이들 일련의 사건으로 해외 독립운동 근거지 설립을 위한 모금을 추진하고 있던 신민회는 거의 와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서간도 독립기지 건설 계획도 신민회의 지원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회영 형제나 안동 유림 이상룡, 김대락 등 서간도 이주를 추진한 지사들은 사재(私財)를 들여 삼원포의 자치조직인 경학사(耕學社)와 신한민촌 건립을 지원하였다. 백사 이항복의 10대손으로 부유한 명문가 출신인 이회영의 6형제는 모두 상당한 재력을 가지

49)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43-48쪽.

50) 장세윤,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안동유림의 남만주 이주와 이상룡·김동삼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제24집, 2017, 94-95쪽.

고 있었다. 그중 부친 이유승의 12촌이며⁵¹⁾,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의 양자로 입적한 이석영(1855~1934)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석영이 처분한 2만여 석의 재산과 토지는 독립군 기지 건설과 더불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⁵²⁾

서간도뿐만 아니라 해외독립기지 건립 추진 세력들은 대체로 한인 이주자들을 모아 망명촌을 건설하고, 민족교육과 군사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을 진행하였다. 즉, 망명촌 건설은 경제적 기반을 해결하는 것이고, 민족교육은 민족사회 건설의 기본 조건이었다. 추진 세력들은 이를 기초로 군사교육을 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하였다.⁵³⁾

이회영, 이동녕, 이상룡, 김동삼 등 서간도로 이주한 이들은 1911년 4월 유하현 삼원포의 고산자(孤山子)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군중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는 ①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② 전통적인 도의에 입각한 질서와 풍기를 확립할 것, ③ 개농(皆農)주의에 입각한 생계 방도를 세울 것, ④ 학교를 설립, 주경야독의 신념을 고취할 것, ⑤ 기성 군인과 군관을 재훈련하여 기간 장교로 삼고 애국청년을 수용하여 국가의 동량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는 5개 항을 결의하였다.⁵⁴⁾

51) 이은숙, 『서간도 시종기』, 일조각, 2017, 64쪽.
52)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사, 1974, 17쪽.
53) 조동걸, 「만주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 제111호, 2000, 221쪽.

이들은 우선 망명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경학사는 병농일치제를 채택하여 농경에 종사함과 동시에 학술을 연마하여 독립운동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독립운동단체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간도 독립군 양성 계획은 조선총독부의 신민회 탄압으로 신민회가 약속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1911년과 1912년 연이은 대흉작으로 경학사는 경제난에 봉착하였다. 자금 마련을 위해 이회영, 장도순(張道淳),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이동녕 등이 봉천(奉天), 노령 지역 혹은 국내로 떠났지만, 어려움 가운데 운영되던 경학사는 결국 중지되었다.

이후 경학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서간도 지역의 새로운 한인 자치기관으로 부민단(扶民團)이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에 설립되었다. 경학사가 비밀결사의 성격이 강했던 데 비해 부민단은 서간도 6,000여 명의 이주 한인을 보호·관리하며, 중국인과 한인 사이의 민·형사 사건 및 분쟁 등을 해결하는 지역 자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 부민단의 여러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흥강습소를 개편하여 군사 인재양성을 강화하는 것과 기타 한인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었다.⁵⁴⁾ 요컨대 부민단은 경학사와 마찬가지로 해외 독립기지로써 한인사회 조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중요 사업에는 신흥강습소를 통한 독립군 양성도 있었다.

54) 이관직, 「우당 이회영 實記」, 『우당 이회영전』, 을유문화사, 1985, 157쪽.

55)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36쪽.

「경학사 취지서」



© 독립기념관

오호라. 사랑스럽도다, 한국이여. 애처롭도다, 한민(韓民)이여. (중략) 어쩌다 백 년 동안 진한 잠이 취해 있다가 마침 오대양에 바람맞는 조수가 불어나는 시기를 만나, 포환의 우레가 날마다 지붕 위에서 요동치는데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철함과 전차가 문밖에서 서로 내달리는데도 우리는 보지 못하였다. 결국, 창졸시간에 사나운 호랑이가 뒤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굶주린 매가 앞에서 발톱을 놀리게 되었다.

(중략) 차라리 칼을 잡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도 도리어 몸을 죽여 적들을 통쾌하게 할까 혐의스럽고, 곡식을 끊어 죽으려 해도 나라를 팔고 명예를 파는 것 같아 차마 하지 못한다. 장차 눈물을 흘리며 하늘까지 사무치는 치욕을 받을 것인가? 대개 또한 힘을 축적하여 중국의 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희망을 양식으로 삼아 스스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곤란을 초석으로 삼아 집이 아닌 집을 축조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만주 은양보(恩養堡)에서 중인(衆人)의 열렬한 마음을 융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고, ‘경학사(耕學社)’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인명을 보호하고 살리려는 것뿐만이 아니고, 민지(民智)를 개발하려는 차원이었다. 공상(工商)이 비록 다르지만 모두 실업계에 속한다. 체덕(體德)을 겸비하는 것은 절로 교육부서의 과조(科條)에 들어있다. 갈 길이 멀고 더디다고 근심하지 말지니, 걸음이 누적되면 만 리를 갈 수 있다. 규모가 영성하다고 탄식하지 말지니, 한 삼태기도 쌓이면 태산이 될 수 있다.

이상룡 저, 인동독립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상), 경인문화사, 2008, 624~626쪽

신흥무관학교 설립

1911년 6월 삼원포 추가가에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던 원병상(元秉常, 1895~1973)의 말을 빌리면, ‘신흥’이라는 이름은 신민회의 ‘신(新)’자와 다시 일어나 구국 투쟁을 한다는 의미에서 ‘흥(興)’자를 붙여 만들었으며, 신흥강습소는 “학술을 연마하며 군사훈련을 겸하여 조국광복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을 위해 창설되었다.⁵⁶⁾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광복군 제3지대장을 역임한 김학규(金學奎, 1900~1967)는 신흥무관학교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경학사는 일면 받을 갈고 일면 공부하여 인재를 배양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였다. 경학사는 이것을 본뜻[宗旨]으로 하여 ‘군관학교’를 개설하였으니, 이름을 ‘신흥학교’라 하였다. 국내의 우수청년과 동북[만주] 한교(韓僑)의 영준 자제를 모집하여 군사 인재를 가르치고 길러냈으니, 이것이 바로 (중국) 동북 한인 무장운동의 기초사업이었다.⁵⁷⁾

56)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신동아』 제58호, 236쪽.

57) 김학규, 「三十年來韓國革命運動在中國東北」, 『光復』 제1권 2기(194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영인본, 1987, 19쪽; 장세윤, 「一松김동삼의 신흥무관학교 참여와 통의부」,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편,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14.6.10.), 10쪽 재인용.

서간도로 이주한 항일지사들의 목표가 처음부터 독립군 양성이었으므로 무관학교의 설립은 원래의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다.

초대 교장은 이동녕, 교감은 김달(金達), 학감은 윤기섭이었고, 이갑수(李甲秀)·이규룡(李圭龍, 1887~1955), 장도순 등은 교사로 참여하였고,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인 김창환·이장녕·이관직 등은 교관으로 학생들에게 무관 교육을 시행하였다.⁵⁸⁾

경학사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자 경학사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신흥강습소도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 이 외중에 신흥강습소는 제1회 졸업생 40여 명을 배출하였다.⁵⁹⁾ 그러나 경영난과 중국·일본의 압박 속에 이회영, 이동녕 등은 추가가(鄒家街)의 신흥강습소를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로 옮겨 무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회영 등의 토지매입 청원의 노력과 이석영의 지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부민단이 설립한 합니하의 신흥강습소는 1912년 음력 3월부터 6월까지, 생도들도 직접 노역에 참여하여 교사 등의 학교시설을 신축하였고, 낙성식을 거행하였다.⁶⁰⁾ 학교는 학년별로 강당과 교무실을 마련하였고, 내무반에는 사무실·숙직실·편집실·나팔반·식당·취사장·비품실 등을 갖추었

58) 박환, 『신흥무관학교』, 선인, 2021, 19-20쪽.

59)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신동아』 제58호, 237쪽.

60)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06쪽; 주동욱, 『항일독립운동의 요람 신흥무관학교』, 90쪽; 이계형, 「1910년대 전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안동 혁신 유림의 역할」, 『만주연구』 제33집, 2022, 75쪽; 박환, 『신흥무관학교』, 23쪽.

으며, 낭하에는 생도들의 이름이 부착된 총가(총받침)를 설치하였다.⁶¹⁾ 일정하게 군사훈련과 중등교과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게 된 것이다.

합니하에 새롭게 교사가 건축된 후, 추가가의 학교에서는 소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쳤고, 합니하의 신흥중학교는 본과과정과 군사과정을 두었다.⁶²⁾ 교육은 주로 민족교육과 무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무관 양성이라는 목표를 숨기기 위해서 합니하로 옮겨온 후에도 대외적으로는 신흥강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신흥무관학교는 학교보다는 낮은 등급의 신흥강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이나 일본 관헌이 이 학교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려고 보안에 많은 신경을 썼다.

안동의 명문가로 온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로 이주한 이상룡은 신흥학교에 대해 「유하현 지사에게 올리는 글(呈柳河縣知事文)」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흥학교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저희들의 중등학당입니다.

(중략) 이 때문에 前代 청나라 宣統年間に 이 학교를 제1구의 추가가에 설립하였고, 2년 후에 통화현 합니하로 이전하

6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10쪽.

62) 원병상의 「신흥무관학교」를 인용한 연구자는 합니하에 교사가 신축되면서 추가가의 신흥강습소가 합니하로 옮겨와서 추가가의 강습소는 없어졌다고 보기도 하나, 이상룡이나 김대락의 기록을 인용한 연구자는 추가가 학교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본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11~112쪽; 이계형, 앞의 논문, 2022, 76쪽).

였다가, 올봄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3구의 고산자로 옮겨왔습니다.⁶³⁾

이상룡은 추가가 학교, 합니하 학교, 그리고 고산자 학교의 성격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고산자 학교를 설립한 전후에 신흥학교의 군사학교적 성격이 문제가 되었던 탓인지 이상룡은 신흥학교가 중등학교이며,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조 과목은 군사훈련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과목임을 강조하였다.⁶⁴⁾

또한, 학교 관계자들은 함부로 외부인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3·1운동 이전까지 일본 식민당국자들은 신흥무관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⁶⁵⁾ 다만 당시 학생과 주민들은 추가가의 신흥학교와 합니하의 신흥학교를 구별하기 위해 합니하의 신흥학교를 신흥중학교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며, 이회영, 양기탁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일부 사람들, 특히 군사과의 학생들은 무관학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 학교를 ‘신흥무관학교’라고 불렀다.⁶⁶⁾

3·1운동 이후 독립투쟁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품고 신흥학교를 찾는 학생이 늘어나자 학교의 확장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당국은 유하현 고산자에 40여 간의 병사(兵舍)와 연병

63) 이상룡 저, 안동독립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상), 5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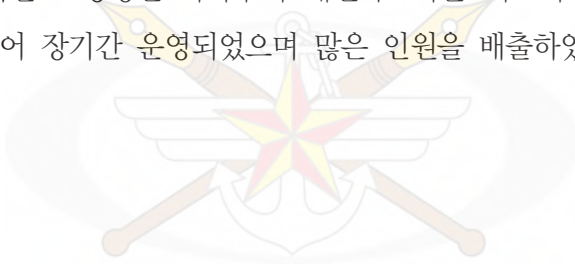
64) 이상룡 저, 안동독립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하), 158쪽.

65)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84쪽.

66)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13쪽.

장을 마련하였다. 고산자의 신흥학교가 무관학교 본교가 되고 합니하, 쾌대무자에는 분교를 두었다. 이 시기에도 ‘무관학교’가 대외적인 공식명칭이 되기는 어려웠다. 특히 3·1운동 이후 일제가 만주 독립군의 활동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면 고산자의 본교든지, 합니하와 쾌대무자의 분교든지 모두 군사교육에 이전보다 더욱 힘쓰고 있었다.

신흥무관학교는 연해주의 권업회, 북간도의 간민회나 봉밀산의 한흥동, 북간도 왕청현 나자구의 대전학교와는 비교되지 않게 짜임새가 있어 장기간 운영되었으며 많은 인원을 배출하였다.⁶⁷⁾



67)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82쪽.



추가가 신흥강습소 터 © 독립기념관



합니하 신흥중학교 터 추정지 © 독립기념관



고산자 신흥무관학교 터 © 독립기념관



쾌대무자 신흥무관학교 분교 터 © 독립기념관

군사교육 실시

신흥무관학교의 편제를 명확하게 뒷받침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 다만, 수기와 회고 등을 통해 그 편제와 교과과정을 개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원병상은 둔전병제도로써 연대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계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⁶⁸⁾

신흥강습소는 창립 당시 일반과정인 본과와 무관 양성을 위한 속성과를 설치하였다. 1912년 합니하에 설립한 신흥학교는 4년제 본과와 6개월과 3개월 과정의 군사과를 설치하였다.⁶⁹⁾ 군사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등과정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군사교육을 하였다. 혹자는 신흥학교가 처음에는 중등과정과 군사과정을 두었으나 곧 중등과정을 폐지하고 군사교육에만 전력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⁷⁰⁾

1919년 입교생이 증가함에 따라 확장 이전한 고산자의 신흥무관학교는 2년제 고등군사반을 두어 고급 간부를 양성하였고, 합니하, 쾌대무자(快大茂子)의 분교에 초등군사반을 편성하여 3개월의 일반훈련과 6개월의 후보 훈련의 학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항일무장의 움직임이 촉진되면서 신흥무관학교는 재학생을 빨리 졸업시키고, 신입생에 대해서는 단기교육을 하여 단시간에 다수의 무관을 배출하려고 하였다⁷¹⁾

68)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신동아』 제58호, 241쪽.

69)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16쪽.

70) 김승학, 『한국독립사』 351쪽; 박환, 『신흥무관학교』, 31쪽 재인용.

71) 박환, 『신흥무관학교』, 31쪽.

원병상의 수기에 따르면 신흥무관학교는 중학과정을 다 마치기 어렵거나 오로지 군사교육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속성으로 단기교육을 하는 군사과를 설치하였다. 군사교육만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란 대한제국 말기에 의병 활동을 하였거나 일반 학과보다는 군사교육만을 원했던 사람들로, 이 중에 상당수는 나이가 적지 않았다. 수업연한이 더 길었던 중등과정을 다니는 학생들도 군사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군사교육을 받았다.⁷²⁾ 원병상은 4년 만에 졸업한 본과생이었으나⁷³⁾ 군사교육을 받았다.

신흥학교의 1912년 제2학년 일반 교과목은 국문·역사·지리·수학·수신·독서·한문·이화(理化)·체조·창가·중국어였다. 20세기 초반 중국과 일본 등지의 중등학교 교과목이 대체로 수신, 국어, 역사, 지리, 산술, 창가, 체조, 물리화학, 외국어 등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흥중학교도 본과의 교과목은 당시 일반적인 중학교의 교과과정을 따르고 있었다.

일반적인 중등학교와 신흥무관학교의 차이점은 교육의 핵심이 군사교육에 있었다는 점이다. 10세 이상 25세의 반드시 건장한 자라야 합격시켰다고 하거나 18·19~24·25세의 청년으로 기백이 있는 무리만 모았다는 기록에서도 무관학교로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⁷⁴⁾

72)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14쪽.

73)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16쪽.

74)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24쪽.

신흥강습소가 설립되고 이관직·이장녕·김창환 등 대한제국 무관 학교 출신자들이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으로 재직했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신흥학교 군사과 교과목의 설계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⁷⁵⁾

대한제국 무관학교의 학과목은 무술학·군제학·병기학·축성학·지형학·외국어학(불어·독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어)·군인위생학·마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훈육과목은 교련·마술(馬術)·체조·검술 등이었다.⁷⁶⁾

신흥무관학교의 학과목은 보병학·기병학·포병학·공병학·치중학과 내무령·측도학·축성학·육군형법·육군징벌령·위수복무령·구급의료·편제학·훈련교범·총검술·유술·격검 전술 전략 등에 중점을 두었다.⁷⁷⁾

술과로는 넓은 연병장에서 교관 김창환의 구령 아래 각개 훈련과 기초훈련을 하였다. 야외에서는 고지를 오르내리며 가상의 적에게 공격전, 방어전, 도강과 상륙작전 등을 익혔다.⁷⁸⁾ 군사훈련이 중심이 되는 무관학교에서 체육은 주요 교과목이었다. 엄동설한 야간에 파저강(婆瀨江) 70리 강행군을 비롯하여 빙상운동, 춘추대운동, 격검, 유술, 축구, 철봉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체력을 연마하였다.⁷⁹⁾

75) 박환, 『신흥무관학교』, 20쪽.

76) 제1장 참조.

77)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신동아』 제58호, 241쪽.

78)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신동아』 제58호, 241쪽.

79)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신동아』 제58호, 241쪽.

신흥무관학교가 가장 중시했던 군사훈련은 오히려 시설과 무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용 총으로 처음에는 중국 당국의 묵인 속에 나무를 깎아 만든 목총을 사용하였고, 이후 여기에 쇠로 만든 방아쇠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병농일치제를 시행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의 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밭을 일구고 노동을 하여 학교재정을 보태기도 하였고, 새로운 교사 신축에는 직접 노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學)·병(兵)·농(農) 일치의 둔전병제도는 신흥무관학교의 특징이기는 했으나, 교육과 훈련의 한계가 되기도 하였다.

『신흥학우보』의 보병전투연구

신흥무관학교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무엇보다 독립군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군사교육 기관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쉽게도 그들이 사용한 군사교범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도 군사교재 개발이나 전투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교육과 훈련에도 근대교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으로 그 학교 교관을 역임한 원병상의 수기, 『신흥학우보』 제2권 2호(1917.1.) 및 제2권 10호(1918.7.)에 수록된 「보병전투연구」는 신흥무관학교가 근대적인 군사교범을 활용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⁸⁰⁾ 또한, “합니하 강변의 깊숙한 곳에 신흥중학교를 설립하고 군사과를 부설하여 몰래 일본 병서를 구입하여 강습하게 되었다”는 이상룡의 기록도 신흥무관학교 교관들이 여러 병서를 교범에 사용하려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⁸¹⁾

신흥무관학교가 사용한 군사교범은 처음에는 개발보다는 기존의 교범을 차용했을 것이라는 데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물론 최우선 대상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이었을 것이다.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가 사용한 교범으로는 「전술학교정」·「축성학교정」·「군제학교정」·「병기학교정」·「지형학교정」·「위생학교정」·「마학교정」 등이 있었다. 또한, 교련을 위한 교범으로 「보병조전」·「육군예식」이 있었고, 체조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체조교범」이 있었다.⁸²⁾ 여기에 더하여 「군대내무서」,

80) 김주용, 「신흥무관학교의 문을 두드리다-독립군 배양의 요람, 그 실체를 확인하다」,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김주용, 「신흥무관학교와 무장독립투쟁」, 『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육군의 역사』, 육군사관학교 학술회의자료집, 2017; 조필균, 「만주지역 독립군 군사교육자료의 현대적 해석과 함의: 『신흥학우보』와 『독립군 간부훈련 교본』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6-2권, 201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81) 『국역 석주유고(상)』, 555쪽; 박환, 『신흥무관학교』, 24쪽 재인용.

82) 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학술학을 중심으로」, 『三一論文集』 제28집, 1989, 5쪽.

「야외요무령」, 「축성교범」, 「육군형법」, 「육군징벌령」 등이 편찬되었다.

학교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의 김창환·이세영·이장녕·양성환·이관직 등이 교관으로⁸³⁾ 근무했던 신흥무관학교는 대체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을 그대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군사교범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병상은 “병서는 윤기섭이 일본 병서와 중국 병서를 구하여 번역하고 그중에서 새로운 병서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특히 구령(口令)을 통일시켰다”라고 회고하였다. 보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윤기섭은 서간도로 이주해 와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설립에 투신하였는데, 원병상의 회고처럼 신흥무관학교의 군사교범 개발은 윤기섭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⁸⁴⁾ 그 흔적을 윤기섭이 편찬과 최종교열에 간여한 『신흥교(학)우보』에서 찾을 수 있다.

1913년 5월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인 여준은 제1회 졸업생 김석 등과 함께 교직원,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이 참여하는 신흥교우단을 조직하였고, 1915년 4월 신흥학우단으로 개칭하였다. 신흥교우단의 설립 목적은 “혁명대열에 참여하여 대의를 생명으로 삼아

83) 박환, 『신흥무관학교』, 19-20쪽.

84)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50;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윤기섭」,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574쪽 재인용.

조국광복을 위해 모교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최후일각까지 투쟁한다”는 것이었다. 신흥무관학교가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이었다면, 신흥교우단은 신흥무관학교가 더 강하게 조직하고 단련하는 측면 조력 단체이면서 동시에 조국광복을 실현하기 위해 뭉친 독립운동단체였다.

신흥교우단은 1913년 6월 8일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으로 『신흥교우보』를 창간하였다. 신흥교우단은 혁명이념의 선전, 학술연구, 정신연마 그리고 더 나아가 일선 투사들의 투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신흥교(학)우보』를 발행하였고,⁸⁵⁾ 또한, 이주 한인들의 교양과 지식을 높이고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고자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미주 지역의 한인사회로 전파하였다. 아쉽게도 현재 남아있는 것은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흥교우보』 제2호(1913.9.), 『신흥학우보』 제2권 제2호(1917.1.) 및 제2권 제10호(1918.7.)뿐으로,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다.

8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223쪽.



『신흥교우보』 제2호(1913.9.15.)



『신흥학우보』에 실린 「보병전투연구(譯),(續1),(제2권 제2호)

© 독립기념관

다만, 『신흥학우보』 제2권 2호에는 「보병전투연구(譯)(續1)」이 수록되어 있고 제2권 10호에는 「보병조전 대조 보병전투연구(譯)(續9)」가 수록되어 신흥무관학교도 군사교범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추정해 보게 된다.

필명이 상무자(尙武子)로 되어 있는 두 편의 글은 모두 지휘관과 병졸이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 신흥무관학교의 교련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⁶⁾ 또한, 보병 전투에 관한 이 글들은 각각 1년 6개월의 시간 차이를 두고 있다. 비록 『신흥학우보』의 출판주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각각의 제목 끝에 ‘속(續)1’과 ‘속(續)9’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속(續)1’이 발표된 후, ‘속(續)9’가 발표되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사이에 ‘속(續)2’에서 ‘속(續)8’의 7편이 더 발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무자’라는 필명의 저자는 이 글을 집필하면서 『독일보병조전』을 비롯한 이전에 발행된 국내외 교범들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신흥무관학교가 근대 군사교범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신흥교(학)우보』는 독립을 향한 의지 고취뿐만 아니라 군사교범의 개발 등 독립군 양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86) 조필근, 앞의 논문, 2017, 131쪽.

尙武子, 『보병전투연구(譯)(續1)』, 『신흥학우보』 제2권 제2호(1917.1.13.)

(5) 전투연습은 소수의 병력과 약간의 표기(標旗)로서 적의 선을 표시하고 또 이 가상의 적을 증대하여 후방부대의 위치와 움직임 을 표시하고 혹은 소수 인원으로 조종(操縱)할 만한 표적을 사용하여 실제상황에 근접(近通)한 적선(敵線)의 상태를 나타내든지 혹은 실질적인 2개 부대로써 대항연습을 행한다. 소부대에 있어서는 사격 지휘와 총의 사용법으로써 목표의 경황에 따르게 함을 요하니 적선의 표시를 이에 알맞게 하여 실제상황에 근접하도록 한다.

전투연습은 실제상황에 근접하게 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따므로 가상의 적을 두어 그 적정(敵情)을 마땅히 변화시켜 우리 지휘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에 대한 알맞은 처지를 요구하는 연습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크므로 단순히 가상의 적을 둘 뿐만 아니라 이 병력을 증대시켜 적정을 변화하게 하고 더욱이 양측 부대의 실제 병력으로서 서로 변화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만반(萬般)의 임기응변과 원칙의 응용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연습할 시에 공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때라도 그 계획과 준비 작업은 엄밀하게 행해야 한다.

공사가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숙지하는 바이나 연습에서는 타 부대와 관계상 이를 실행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때라도 그 계획과 준비 작업은 엄밀히 실전의 제반

정황과 맞게 할 것이며, 산만한 계획과 준비 작업은 연습을 실전에 맞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사시에 그 실시를 그릇되게 한다.

(7) 실전적인 연습이 되게 함에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지형을 이용하여 적당한 제식을 채택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채택함에는 먼저 우리 병기(兵器)의 효력을 높이고, 그다음 적 화력의 효력을 감소(減殺)하게 하는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

연습에서는 실전과 같이 위험한 감정과 불리한 영향이 없으므로 그 과정이 걸핏하면 너무 빨라 잘못하여 실전과 맞지 않는 동작을 만들게 되므로 소부대의 연습에서도 심판관을 두어 적시에 적 화력의 효력을 통지하게 함으로 각 지휘관이 연습을 실전적으로 수행함과 같이 지도하는 것을 요한다.

연습을 실전에 가깝게 함에는 현재 적의 정황에 응하여 우리의 지휘를 행한다. 자세히 말하면 적의 정황에 의하여 적당한 대형을 채용하고 적당히 지형을 이용하여 적에 대한 동작을 갖추게 한다. 따라서 적 정황의 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일정한 형식을 채용함은 연습을 놀이와 같게 하는 것이니 교육을 그릇되게 함이 대개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적의 정황과 지형을 고려하여 밀집과 산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적에게 심대한 손해를 주게 하고 그다음에 적으로부터 받을 손해를 할 수 있는 대로 감소하게 하도록 적

당한 대형을 선정하여 행한다. 이제부터 적의 화력을 받음이 적더라도 적에게 손해를 끼칠 일이 적은 대형을 쓰는 것이 불가하니 예컨대 적 측으로 내려갈 경사면에서 전투하는 산병(散兵)은 적 화력의 효력을 적게 하려면 엎드린 자세[엎드려 쏘]가 적당하다. 하지만 엎드린 자세가 우리 측 사격에 불편할 시에는 적의 화력을 고려하지 말고 무릎 자세[무릎 쏘]나 서서 쏘는 자세[서서 쏘]를 행하는 것이 옳다. 또 지형지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부대의 정면은 적선과 평행되지 않고 비스듬한 방향에서 사격하게 하므로 우리의 사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니 차라리 지형지물을 버리고 급하게 적을 사격할 대형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 또 적 기병(騎兵)의 습격에 대하여 밀집한 대로 서서 쏘는 부대는 그 사격은 자유로우나 만약 적의 보병·포병이 있을 시에는 그 화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무릎 자세[무릎 쏘]의 횡대를 채용함이 우수할 것 같으므로 총체적으로 이 2가지 요령에 따라 작게는 병사 1명의 동작·소대의 대형으로부터 크게는 각 병종(兵種)을 연합한 대부대의 전투 대형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요지로 하여 연습한다.

연습에서는 피아의 손해 즉 물질상 전투력의 감모(減耗)와 위험·비참한 광경으로부터 생기는 불리한 감정 즉 정신상의 영향을 주는 손해들을 받음이 자못 없으므로 걸핏하면 자기의 불리(不利)를 감수하는 일이 없고 사격의 효력을 무시하

므로 연습은 실전에 맞지 않게 지나치는 일이 있으니 이 연습은 극히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관을 두어 각 시기에서 실전의 상태를 직접 발현·감수하게 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실전에 가깝게 한다.

(8) 평시 교련에서 주요한 요구는 군대의 지기(志氣)를 불러 진작시키고 군기(軍紀)를 긴장하게 하며, 보병공격에 양호한 기상을 양성하고 맹렬하고 과감하게 돌격함을 관습(慣習)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유효한 방법은 모두가 이를 실시하고 제반의 제식실행(制式實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제 부대가 교련을 엄격히 실행함은 군대의 지기를 양성·진작하고 또 군기를 유지하는 데 가장 유효함에 가장 유효하니 전투의 지극한 뜻은 정신에 있고 전술의 형식은 이를 발전시킬 보조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승리는 정신이 충만한 군대가 아니며 이를 얻기 어렵다.

지기의 진작 여부와 군기의 장이(張弛)는 실제로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투의 각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전의 때에 그 영향이 가장 현저하다. 따라서 군기는 군의 주초(柱礎)인데, 지기에 기반한 바가 아니면 볼가하고 징벌을 두려워하여 이루어진 군기는 실로 군기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므로 큰일에 임하여서는 믿지 못할 것이다. 인전탄우(鈞電彈雨)의 위협이 눈앞(目睫)에 닥치고, 사체가 진두(陣頭)에 가득하여 비참한 광경을 드러낼 때, 혹

은 패퇴해야 할 때 갑자기 해이하게 될 것이다. 각 장교가 부하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심안(心眼)을 얻으면 전투 상황이 곤란할지라도 그 신뢰는 더욱 견고할 것이다. 적의 사격에 의하여 그 병력 수의 약 3분의 1일 죽으면 나머지 병력은 갑자기 엎드려 숨거나[平臥] 혹은 퇴각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퇴각을 야기하는 원인은 그 체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정신에 있으므로 훈련이 완전하고 지기가 왕성한 군대는 지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여 설령 지휘상 다소 잘못이 있어도 오히려 그 목적에 도달한 사례가 전사(戰史)에 많다.

공격 정신은 승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겨우 적의 사격 효력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공격 정신이 꺾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따라서 평시에 맹렬하고 과감하게 돌진하는 정신을 양성하여 만약 유사시를 당하면 능히 두렵고 처참한 광경을 타파하고 승리를 얻는 예기(銳氣)를 분발할 것이 요구되므로 대개 물질의 손해를 보충하여 채우고 또 더욱 분투하여 노력하는 것은 공격 정신 외에는 없다.

- (9) 부하의 체력은 때때로 이를 애석하게 여겨야 하지만 대개 필요한 시기에 당하여서는 조금도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사용하여 과격한 노동을 요구하여도 무방하다.

교육과 사용을 혼동함이 옳지 않으니 교육에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체력의 교육을 요함으로써 긴 시간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하루에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요지(要旨)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사용함에는 현재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이를 아깝게 여길지라도 최대한 노력을 요구할 시기에는 조금도 관용의 정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필요 없이 군대를 피로하게 하면 꼭 필요할 때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10) 검열을 할 시에 상관은 힘써 지휘관과 함께 군대의 제식과 원칙의 실천 및 응용의 숙달 정도(習熟程度)가 어떠한지를 주의해야 옳다.

군대의 진보는 그 통솔자의 착안이 적절함에 따라서 비로소 이를 기간 내에 달성된다. 따라서 검열자는 눈빛을 예리하게 하여 그 시기에 적응하게 한다. 검열자의 착안과 강평에 의하여 군대는 바로잡을 바를 알고 한 뜻으로 이에 복종하고 그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것으므로 착안과 강평이 옳음을 잃으면 도리어 군대의 진보를 저해하게 하는 것이 될 뿐이다. (未完)

尙武子, 「보병조건 대조 보병전투연구(역(譯))(續9)」, 『신흥학우보』 제2권 제10호(1918.7.15.)

제2부 전투

지휘관과 병졸(속)

(2) 전투형세에 따라 지휘관은 각 병사의 직무에 응하여 시기에 적절한 처치를 결행함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대개 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은 그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큰 위태로움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휘관은 각 병사에게 분담한 임무를 완전히 하는 데 전력으로 노력한다. 명령과 규정과 훈시한 사항을 정당하게 실시함은 물론이고, 전투형세에 따라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기에 적당한 처치를 결행하여 이익을 획득함에 대해서는 결코 수수방관하거나 우물쭈물하지[逡巡遲疑] 않는다. 정당한 이유와 선량한 심정에 기반하여 단행한 처치는 후일 부인될 염려가 결코 없으므로 조금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물며 한번 기회를 잃으면 다시 이를 얻고자 하여도 얻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귀중한 지휘관의 성질은 책임을 중히 하여 복종할 것이다. 만일 지휘관의 의지로 전반에 관해 고려를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專恣]의 결단을 하며 혹은 받은 명령을 존중하지 않

음으로써, 복종해야 할 경우에 자만심(倨傲心)에 끌리는 것은 그 의지를 참으로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임무를 부여한 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알리기 불가능하거나 상황변화를 위하여 명령대로 실시하기가 불가능함을 인식한 경우에는 수령한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를 변경하여 실시하고 그 사유를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하급자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명령에 복종하지 못한 때에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책임을 중히 하고 복종을 존중하는 지휘관은 전투의 결과가 양호하지 못한 때에도 평소대로 군대를 사지(死地)에 던져 질지라도 지체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지휘관(자)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저하는 방법은 잘못 선택하는 것보다 큰 불이익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고, 또 이를 부하에게 명심하게 한다. (독일보병조전)

- (3) 전투간에 각 지휘관은 연계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적당히 협동동작(協同動作)함에 주의한다. 그러므로 상급지휘관은 부하 군대가 그의 통제를 이탈하여 빛나가지 않도록(脫逸) 감독하고, 하급 지휘관은 명령을 기다리는 것에만 구애되지 말고 적당히 독자적인(獨斷) 행동으로 그 분담한 임무를 행한 후에는 속히 소속부대에 합류하여 상관의 사용에 적응하도록 주의한다.

전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전투 상황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각 지휘관에게 위임할 독자적인 판단[獨斷]의 여지도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이 유의할 것은 전체의 범위 안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를 결단하여 행하도록[專行] 힘쓰고 자질구레한 일[瑣事]에 대한 감독은 나중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급지휘관은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좇아 협동동작에 힘써 결코 전횡하여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행하는 적당한 독자적 결단과 이행은 좋은 전투 성과를 내는 기초가 된다.

산개(散開)전투에서 각 지휘관은 특별히 인접 부대와 연계하여 서로 기동과 사격에 방해되는 일이 없게 하며 그 중간에 적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또 부대의 거리, 간격, 각관(各官)의 지휘, 명령하달의 순서 등을 살펴서 각 부대가 혼잡되지[混淆] 않게 한다. 또 행진 방향을 똑바로 유지하여 각 산병과 부대로써 착오됨이 없도록 주의한다. 기타 상급지휘관은 부하 군대가 어느 곳에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며 결코 그 소재를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일 그 부하가 통제[掌握]를 벗어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있으면 모든 필요한 주의를 취하여 다시 그 통제를 회복해야 한다. 분장(分掌)한 임무를 행한 하급 지휘관은 속히 소속부대에 복귀하여 이후의 사용에 적응해

야 한다. 예컨대 산병선(散兵線)의 견부능선[翼陵]에 전진하는 지원부대가 측방으로 기습하여 오는 적의 기병에 대하여 정지사격을 한다면 적 기병을 격퇴한 후에 명령이 없더라도 속히 산병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跟隨]과 같다. 만일 차제에 적의 기병을 격퇴하여 산병선과 멀어져 증가의 시기를 잃으면 이는 소대장의 큰 과실이므로 적 기병을 퇴각한 공도 또한 크게 감소하게 된다. 대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한다[獨斷專行]는 것은 상관으로부터 매사에 명령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잘 판단하여 상관의 의도에 배치되지 않게 정황을 적당하게 결행함을 이르는 것으로서 책임이 항상 이에 따른다. 이따므로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專行者]의 계급에 따라 그 의미가 넓고 좁게 적용할 수 있다.

협동동작은 그 귀착점이 명료함에 따라 그 실행이 더욱 용이하다. 전투는 단지 일부 혹은 한 개 부대의 노력으로는 능히 승리를 얻지 못함이 명백하고 종 방향과 횡 방향에, 유·무형의 연계와 질서에 따라 상호 단결된 노력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동작을 확실히 행함에는 상급지휘관은 부하 지휘관에게 그 의지의 소재를 고지(告知)하여 돌아올 지점을 알게 하고 상방(上方)에서 이를 이끄는 동시에 하급자도 또한 하방(下方)으로 이에 계착(繫着)하도록 노력한다.

대저 정황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고 그 정황에 대한 처치

방법도 적시에 지휘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상관이 그 지휘에 힘쓰더라도 하급자에게까지 이를 때는 그 시기를 지나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하급자는 오로지 상관의 명령을 기다림에 구애되어 자기가 받은 임무와 명령의 정신을 몰각(沒却)하고 호기를 수수간과(袖手看過)하지 말아야 한다.

(4) 지휘관은 전투를 지휘함에 부대의 대소(大小),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극히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명령을 하달한다. 만약 간단한 구두명령(口述)으로서 부대를 신속히 요구되는 방향 혹은 위치에 이르게 하고 상세한 명령은 다음에 이르도록 교부함이 편리하다.

교전 중인 부대의 지휘관을 그 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로 불러서 명령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를 피해야 한다.

모든 명령이 여하(如何)히 지당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가 없고 또 여하(如何)히 유리할지라도 확실히 이를 분배(分配)하지 못하면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명령을 내리는 것과 이를 분배하는 방법은 정해진 바가 아니고 어찌하든지 확실 또는 신속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과오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핵심적 내용(要點)을 구두 명령 또는 신호 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로지 확실한 것만을 위주로 하고 시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신속한 것만을 위주로 하여 위험한 분배 방법을 채

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옳지 않다. 교전 중인 부대의 지휘관을 혹여 멀리 떨어진 위치에 부르는 것은 명령 하달에는 극히 확실한 것이나 그 명령을 수령한 자가 부대로 돌아가기까지는 이미 시기를 놓쳐 이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부재중에 발생한 불의(不意)의 사변에 전혀 응할 수 없으니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를 피해야 한다.

전투에 관한 일정한 형식은 이를 정하기 불가능하므로 전투 명령의 문건에서도 또한 어떠한 형식을 사용할 것인지 자유로 할 것이다.

일반적인 구두 명령을 통해 요구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부대를 지도함이 필요하며, 간단한 훈령 또한 이에 준하게 한다. 그러나 여단(旅團) 이상에 있어서는 통상 문서(筆記)로써 부여한다.

(독일보병조건)

(5) 명령(命令)은 직속계통의 지휘관에게 부여함이 통상적인 규칙이나 필요하면 순서를 거치지 않고 곧장 하급 지휘관에게 명령함도 무방하다. 그러한 때에는 속히 이를 중간자에게 고지한다.

질서를 유지함에 지휘의 계통을 통함이 통칙이나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그 순서를 거치지 않고 곧장 하급자에게 명령함이 무방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그 사항을 중간자에게 고지하고 또는 이미 하급자에게 직접 명령한 일을 고지한다.

(6) 지휘관은 위치를 선정함이 긴요하다. 적에 근접하여 이미 교전을 예기한 때에 지휘관은 전방(前方)에 위치함이 옳다. 이는 적정(敵情)과 지형을 목격(目擊)하고 또 당초의 전개를 적당히 지휘하여 적시(適時)에 결심하여 적에 대하여 나의 이익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지휘관은 적정(敵情)을 관찰하고 부하 군대를 감시하며 인접 부대를 목격함과 또 명령, 보고 등의 신속 전달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선정한다.

지휘관의 위치는 다음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발견에 편리하고 또는 교통 연락에 용이할 것.
- 2) 적정과 지형을 알리기 편하고 또 동시에 우리 군대의 지휘, 감시에 편리할 것.

- 3) 명령, 보고, 전달에 편리하고 또는 가장 신속히 적 응하여 처치할 수 있을 것.
- 4) 국부(局部)적인 형세와 정황을 위하여 혼란(惑亂)할 일이 없고 능히 전반(全般)의 사정을 파악(通曉)하기에 편리하게 할 것.

또 지휘관은 스스로 모범[儀表]이 되어 부대를 장려(獎勵)하며, 그 사기를 고취함이 필요하다. 모든 부대의 지휘관은 냉정·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기 위하여 떠들썩한 중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하며 또 자기의 사상(死傷)은 어 떠하든 군대에 영향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위치의 변화는 지속적인 연락에 크게 해가 되니 이유 없이 이를 시행함이 옳지 않으며 만일 필요에 따라 지휘관이 그 위치를 벗어날 시에는 기존 위치에 도착할 명령·보고를 속히 새로운 위치에 이르도록 적당한 방법을 세워야 한다.

전진 중 적과 교전을 예기(豫期)할 시에 지휘관은 할 수 있는 대로 전방에 위치하며 통상 전위(前衛)로 전방(前方)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지휘관은 약진적으로 전진하여 보고가 신속히 자기에게 도달하도록 주의하며 또 전망이 양호한 지점의 배후에서는 말에서 내려 망원경으로써 정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휘관은 적과 인접 병력의 상황과 지형에 관하여 보고·상보(詳報) 혹은 지도(地圖)로써 대용(代用)하지 못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당초에 처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적시(適時)의 결심으로써 적에 대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군(自軍)을 위하여서는 먼 길(迂路)을 절약하고 또 하급 지휘관의 부적당한 결심을 방지한다. 지휘관은 직속 관계가 있는 호령단위(號令單位)의 지휘관을 적시에 전방으로 초치(招致)한다.

(독일보병조전)

(7) 각 지휘관은 서로 연계를 유지하고, 특히 소속 상급지휘관과 부하 직속의 지휘관에는 확실한 연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법·수단을 다한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를 사용함이 가장 유리하다.

적정과 지형, 기타 전투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을 관찰한 때에는 이를 속히 보고 혹은 통보한다.

교통 연락은 협동동작을 편하게 하고 분위기(氣脈)의 소통은 시기를 놓치지 않게 만반의 처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형(有形)상은 물론이고 무형(無形)의 정신상에서도 능히 연계를 유지함으로써 협동 일치하여 전투의 큰 목적을 향하여 한뜻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황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각 부대는 중복도 꺼리

지 말고 서로 연계의 처치를 강구하며 또는 할 수 있는 대로 각종 보조수단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에 극히 주의하고 또는 충분히 확실히 해야 한다.

(8) 지휘관은 전투 개시 전에 적의 상황과 지형에 관하여 필요한 수색을 하여 전투부서를 결정한다.

지당한 처치는 지당한 결심에서 나오고 지당한 결심은 그 상황을 명확하게 아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전투를 유리하게 하고자 하면 적의 상황과 지형을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수색해야 한다.

(9) 전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을 충분하지 않게 축차(逐次)적으로 증가함은 큰 과실이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과 싸우는 것은 그 우세의 이익을 스스로 방기(放棄)하는 것으로 단지 손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지기(志氣)를 좌절하게 한다.

너무 일찍 과대한 병력을 전개함은 심히 불리하므로 깊이 이를 경계할 것이다. 다만, 이를 애석하게 여겨 필요한 병력을 불충분하게 축차적으로 증가하여 전투를 실행함은 또한 큰 과실이다. 대개 내가 받을 손해는 곧 적의 우세를 의미하므로 열세한 병력을 축차로 전선에 증가시켜야 한다. 손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시 일부를 증가시키면 이는

끊임없이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에 대하여 우세를 점하게 될 시기가 없고 항상 적에게 압도되어 병력을 소모한 결과는 단지 적의 지기를 왕성케 할 뿐으로 우리의 지기는 더욱 좌절하게 된다.

(10) 지휘관은 전투 경과 중 예비대의 사용으로 바라는 지점에서 결전을 촉진하고 또는 전황의 변화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대 사용의 적합 여부[適否]는 전투결과와 중대한 관계가 있다.

일단 먼저 병력을 분할하여 각각 일부의 전투를 분담하게 한 이상에는 그 병력을 지휘관의 의도대로 사용함을 바랄 수 없다. 따라서 지휘관은 잔여 예비대의 사용으로 전투의 중심(重心)을 변환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지휘관은 그 예비대를 사용하여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전투를 지도하거나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그러나 이 예비대의 사용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전투 경과에 따라 전황이 크면 전면(前面)의 정황은 더욱 불명함으로 이를 성급히 사용하거나 호기를 잃은 후에 사용하거나 아무런 이익도 없는 운용으로 필요한 지점에서 멀어지게 되거나 혹은 이를 사용할지라도 전황은 이미 어찌하든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공연히 불 가운데 땀감[薪]을 더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게 되며 혹은 사용의 시기를 놓쳐 공적을 얻지 못하게 되니 깊이 주의해야 한다.

(11) 지휘관은 항상 지형 이용에 주의하여 적의 화력 하에서 군대 이동을 이에 적합하게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전진력(前進力)을 쇠퇴하거나 혹은 전투 동작을 더디게 하거나 지시한 범위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지형의 이용은 지휘관이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개 무익의 손해를 피함에는 지형을 이용하여 적당히 지도함이 필요하다. 지형의 이용이 적절하면 능히 손해를 피하여 군대의 지기가 상실되지 않고, 용감한 동작을 얻을 것이다. 비록 용감한 부대일지라도 큰 손해를 입을 시에는 지기가 상실되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방법이 부적절할 시에는 갑자기 군대의 지기를 위축하게 하고 그 결과 공격 정신을 아주 잃게 된다. 따라서 이용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여 적시 적절한 대응방법을 채용한다. 고작 신체의 안전을 주로 하여 전진력을 쇠퇴하게 하거나 혹은 이동 시기를 놓쳐 전투 동작을 지연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범위로 일탈함은 옳지 않다. 어찌하든 간에 지형 이용은 승리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未完)

※ 원문 출처: 『신흥학우보』 제2권 제2호 및 제2권 제10호(독립기념관 소장).
의역: 필자
참조: 조필근, 『『신흥학우보』를 통해본 신흥무관학교 군사교육 내용의 현대적 해석』, 『학예집』 23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16

제2절 대한군정서, 근대 군사교범을 활용하다

북간도 한인이주와 군사교육의 시작

국의 독립운동기지 설립이 가장 먼저 착수된 곳은 북간도였다. 19세기 후반 한인의 간도 이주가 늘어나자 조선과 청은 간도 지역의 국경 획정을 놓고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늑약」을 강제한 일본은 이후 간도에 출장소를 두고 만주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였다. 그러던 중 1909년 일본은 청과 「간도협약」을 맺어 안봉선(安奉線)⁸⁷⁾ 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연대(煙臺)의 광산채굴권을 확보한 대신 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일제의 한국강점 후 간도로 이주하는 한인 이주자들도 증가하였다. 1909년 이상설(李相畬, 1870~1917)·김학만(金學滿)·정순만(鄭淳萬, 1873~1911)·이승희(李承熙, 1847~1916) 등 독립운동에 뜻을 둔 지사들은 북만주와 소·만 국경의 밀산부(密山府)에서 황무지를 사들여 한흥동(韓興洞)을 세웠다. 한흥동은 “한국을 부흥시킨다”라는 의미로, 지사들은 한흥동으로 100여 호의 한인을 이주시켰다.

길림성과 흑룡강성 사이의 산간지대인 왕청현(王淸縣) 나자구(羅子溝)에도 1910년을 전후하여 한인 이주민들이 모여들어 집단부락이 형성되었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을 전후하여 한인 이주

87) 중국 봉천에서 안동(현재의 단둥)을 잇는 철도.

자가 급증하였는데 그 수는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⁸⁸⁾ 이처럼 한인사회가 건립되면서 독립운동의 공간도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북간도로 이주한 한인들은 집단 거주지 형성과 동시에 민족주의 교육운동을 시작하였다. 신민회 회원 이상설·이동녕·정순만·여준·박정서 등 애국 계몽 인사들은 1906년 이미 연길의 용정촌(龍井村)에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하여 근대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 서전서숙은 1년도 안 되어 폐교되었지만, 민족교육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의 의지를 고취하고 그 세력을 집결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서전서숙 폐교 후에는 명동학교·광성학교·창동학교·북일학교 등이 설립되었는데, 1916년 말 당시 북간도의 학교는 182개, 학생 수는 3,800여 명에 달해 북간도 일대에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⁸⁹⁾

북간도로 이주한 독립지사들은 민족주의적인 근대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교육에도 주목하였다. 나자구에 설립된 민족주의 교육기관으로 태흥서숙(泰興書塾)이 있다. 태흥서숙은 1913년 8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으나 얼마 후 200여 명이 재학하는 큰 규모의 중학교로까지 발전하면서 민족주의적 근대교육에 군사교육을 더하고자 하였다.⁹⁰⁾ 그에 따라 태흥서숙을 발전적으로 개편한 것이 동림무관학교(東林武官學校)였다.

88) 박현숙, 「북간도 대한군정서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5쪽.

89) 박현숙, 위의 석사학위논문, 1988, 13쪽.

90) 박주신,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354쪽.

이동휘(李東輝, 1872~1935)·이중호(李鍾浩, 1887~1932)·장기영(張基永) 등은 연해주에 조직된 권업회의 후원을 받아 1914년경에 왕청현 나자구에 동립무관학교를 설립하였고,⁹¹⁾ 교사와 기숙사를 건립하면서 무관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초기 운영을 시작하였다. 동립무관학교는 만주, 혼춘(琿春), 연해주 등지에서 모여든 학생이 80~100명 정도 재학하였는데, 많을 때는 300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⁹²⁾

동립무관학교는 중국 운남(雲南)에 있는 육군강무학교(陸軍講武學校)⁹³⁾의 한운영과 이영 등이 보낸 중국어 군사학 교재인 「보병조전」·「무술학」·「군인수지」 등과 중국 군대에서 얻은 장총 등으로 군사훈련을 하였다.⁹⁴⁾ 군사교재와 실습용 무기의 부족으로 군사기술의 연마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족교육을 통하여 투철한 항일투쟁 정신을 배양하였다.

학교는 공식명칭을 ‘대전학교(大甸學校)’라고 하여 대외적으로 무관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1915년에는 일본에 노출되었고, 1916년에는 일본의 압박을 받은 중국 당국에 의해 폐교되었다. 학교는 폐교되었으나, 이후 ‘북일(北一)학교’로 계승되었다.

91) 장석홍, 「혼춘 북일학교의 건립과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제31집, 2009, 450쪽.

92) 박주신,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356쪽.

93) 청말 운남성 곤명(昆明)에 세워진 중국의 근대군사학교. 보병, 기병, 포병, 공병의 병과가 있었고, 「보병조전」을 비롯한 근대 군사교재를 사용했다고. 이 학교 출신자 다수가 혁명파인 중국동맹회 회원으로 신해혁명에 가담하였다.

94)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35쪽; 장석홍, 앞의 논문, 2009, 452쪽.

대전학교가 폐교된 후 이동휘와 그의 사위 오영선(吳永善)은 일부 학생들을 이끌고 혼춘 대항구촌(大荒溝村)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동창학교를 흡수하여 북일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현지 주민의 협조를 받아 8칸 가옥의 교실을 지어 3개 반의 수업을 시작하였다. 학제는 일정한 연한이 없었으나, 6개월~1년 만에 수업을 마쳤다. 교육은 대전학교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교육과 더불어 군사훈련을 통한 전문사관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⁹⁵⁾ 조선어·역사·지리를 포함한 12개 과목으로 교과는 구성되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군사교육이었다.

군사 과목을 담당한 고경재(高京在)와 김립(金立)은 군인 출신으로 전략 전술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손자병법」은 물론 창검술·사격·권투 등도 교수하였다.⁹⁶⁾ 이러한 민족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독립군 간부양성의 열의를 우려한 일본의 압박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혼춘 지방 당국은 북일학교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1919년 북일학교는 혼춘 현립 제6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조치였고, 학교의 기능과 구성원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전해진다.⁹⁷⁾

95) 박주신,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359쪽.

96) 박주신,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360쪽.

97) 장석홍, 앞의 논문, 2009, 473쪽.

대한군정서 창설

대한군정서는 북간도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표방하면서 연합하여 세운 군사정부였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한인사회를 건립하고 자치기구를 세워 민족의식과 항일투쟁심을 고취하였다. 북간도에는 간민회(墾民會), 간민교육회(墾民教育會), 동제회(同濟會), 중광단(重光團) 등 애국 계몽의 독립단체가 설립되었다.

1919년 3·1운동을 도화선으로 독립군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조직되었다.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1920년 10월까지 북간도 지역에만 해도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군무도독부, 대한신민단, 의민단, 의군부, 광복단, 대한군정서 등 적지 않은 독립운동단체들이 독립군을 양성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 책은 이들 단체 중 대표적인 조직이었던 대한군정서(大韓軍政署)를 주목하였다.

대한군정서의 시작에는 대종교 신도들로 구성된 중광단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종교는 1909년 나철(羅喆, 1863~1916)·오혁(吳革, 1865~1916) 등이 단군을 모시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로 창시하였고, 단군교는 1910년 교세의 확장에 따라 ‘대종교’라고 개칭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단군 숭배를 통한 민족 구국을 중시한 대종교는 총본사를 만주로 이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북간도로 이주한 대종교 신도들은 1911년 화룡현 삼도구(三道溝)에서 서일(徐一, 1881~1921)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단체인 중광단을 설립하였다. 중광단을 설립할 당시 단원들의 기본 목표는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중광단은 무장투쟁을 준비하기가 어려워 정신교육을 통한 민족정신, 애국과 독립사상을 교육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⁹⁸⁾

3·1운동 직후 중광단은 공교(孔敎)와 연합하여 대한정의단(大韓正義團)을 설립하였다. 공교는 일명 공자교라고도 하는데 청 말의 강유위(康有爲) 등 중국 유생들이 공교국교화(孔敎國敎化)를 주장하면서 학문으로서 받아들여지던 유학을 종교화하였고, 북경에 공교회를 건립하였다.⁹⁹⁾ 만주로 이주한 한인 중에도 공교를 신봉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한정의단에 참여한 공교도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규(李珪)·김성극(金星極)·강수희(姜受禧) 등이 있다.¹⁰⁰⁾

대한정의단도 중광단과 마찬가지로 서일이 단장을 맡았고, 항일 무장투쟁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정의단은 산하에 독립군정회(獨立軍政會)라는 무장조직을 설치하고 각지에서 결사대원 또는 단지(斷指) 결사 대원을 합하여 총 1,037명의 대원을 확보하였다.¹⁰¹⁾ 이때까지는 비밀결사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후 대한정의단은 5연발 총과 같은 한인 포수들이 소지한 무기를

98) 신용하, 「대한군정서 독립군의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203쪽.
 99) 임부연, 「강유웨이(康有爲)의 정교관계 담론」, 『종교와 문화』 38권, 2020 참조.
 100) 이동언, 「서일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권, 2011, 62쪽.
 101) 이동언, 위의 논문, 2011, 69쪽.

수집한다던가, 중국인을 통해 무기를 구입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장을 갖추려는 노력을 쉬지 않았다.¹⁰²⁾

군사전문가가 없었던 대한정의단은 독립군 양성이라는 군사적 목표를 본격화하기 위해 1919년 8월 길림군정사(吉林軍政司)¹⁰³⁾와 연합을 추진하였다. 김좌진(金佐鎭, 1889~1930)·조성환(曹成煥, 1875~1948)·박찬익(朴贊翊, 1884~1949)·박성태(朴性泰)·이장녕 등 길림군정사에 참여한 무관들 다수는 신민회 회원이었고, 그 중에는 조성환과 같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의 군사전문가도 있었다.¹⁰⁴⁾ 대한정의단은 이들이 주도하여 모집한 장정들의 군사훈련을 맡게 하고 또한 독립군 편제를 조직하게 하였다.¹⁰⁵⁾

그러나 이 과정에서—대한정의단 내부에는 보황주의(保皇主義)¹⁰⁶⁾를 표방하는 공교도와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대종교도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다. 결국 이규·김성극·강수희 등 공교도들이 이탈하면서 대한정의단은 대종교와 신민회 계통의 민족주의자들만 재편되었다. 간도와 노령의 다른 독립군 부대들과 마찬가지로

102) 신용하, 앞의 논문, 1988, 204쪽.

103) 파리강화회의에 맞추어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여 대응하기 위해 1919년 2월 여준을 중심으로 대한독립의군부가 결성되었다.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한 대한독립의군부는 여준이 총재로, 군무에는 김좌진이 피선되었다. 원래 설립 목적이 무장투쟁이었던 대한독립의군부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위해 1919년 3월 길림군정사로 재편되었다. (박성순, 「1920년 청산리대첩의 배경과 신흥무관학교」, 『동양학』 제80집, 2020, 96쪽)

104) 박환, 「북로군정서의 성립과 활동」, 『국사관논총』 제11집, 1990, 41쪽.

105) 신용하, 위의 논문, 1988, 207쪽.

106) 일제 강점 초기 보황주의(복벽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독립 세력들은 군주정(대한제국)의 회복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정의단의 무장부대도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을 훈련하고 군량과 군자금을 모집하면서 군대로서의 일면을 강화하였다.

더 나아가 대한군정회는 대한정의단의 산하 조직이었으나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919년 10월 대한정의단과 대한군정회를 ‘대한군정부’로 통합 일원화하였다. 이로써 북간도에도 독립군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군정부에 참여한 인물로는 서일, 현천묵(玄天默, 1862~1928), 김좌진, 조성환, 이장녕, 계화(桂和, 1885~1921), 이범석(李範奭, 1900~1972), 박성태, 정신(鄭信), 박영희(朴寧熙, 1896~1930), 이홍래(李鴻來, 1888~1943), 윤창현(尹昌鉉), 나중소(羅仲昭, 1866~1925), 김성(金星, 1890~1946) 등이 있다. 대한군정부는 ‘총재부’와 ‘사령부’로 나누고, 총재부는 민정과 민사를, 사령부는 군사업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총재부의 수장인 총재는 서일이, 사령부의 수장인 사령관은 김좌진이 맡았다.¹⁰⁷⁾

총재부는 왕청현 춘명향(春明鄉) 덕원리(德源里)에 본부를 두고 사령부의 인력모집과 군자금 모금 등의 군사 활동을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실질적인 군사훈련과 활동의 전개는 왕청현 춘명향 서대파(西大坡)에 본영을 설치한 사령부가 맡았다.¹⁰⁸⁾

대한군정서 독립군은 소대-중대-대대의 편제로 1개 소대를 약

107) 신용하, 앞의 논문, 1988, 207쪽.

108) 박환, 앞의 논문, 1990, 42, 45쪽.

50명으로 하고, 2개 소대를 1개 중대, 4개 중대를 1개 대대로 구성하였다. 대한군정서의 초기 병력은 일반 군인 600여 명과 사관 양성소 출신의 사관생도 300여 명, 그리고 경비대 200여 명이 있었다고 한다.¹⁰⁹⁾ 그러나 일본의 정보보고에 따르면 청산리 전투가 발발하기 전인 1920년 7월까지 대한군정서는 총 4개 대대의 병력 1,600여 명을 보유하고, 무기도 소총 1,300정, 권총 150정, 기관총 7문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¹¹⁰⁾

국내 진공을 목표로 독립군 조직과 군사력 강화, 그리고 군자금 확보에 힘을 쓰고 있던 대한군정부는 그해 12월 국내 진공이 시기상조라고 권고하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대한군정부는 결국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름을 ‘대한군정서’로 개칭하였다. 당시 서간도에는 한족회와 신흥무관학교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서로군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군정서는 북로군정서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¹¹¹⁾

사관연성소 설립

대한군정서는 그야말로 북간도의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였다. 일반병사는 북간도 일대의 한인사회에서 모집하였다. 대한군정부는

109) 신용하, 앞의 논문, 1988, 217쪽.

110) 박현숙, 앞의 석사학위논문, 1988, 24-25쪽; 신용하, 위의 논문, 1988, 217쪽.

111) 신용하, 위의 논문, 1988, 207쪽.

대대별로 관구를 설정하고 그 관구(管區) 내에서 한인 병력을 모집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각 대대의 관구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략 왕청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주둔지와 활동지 부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대의 주둔지는 다음과 같다.¹¹²⁾

제1대대 왕청현 춘명향 서대파 상촌(上村)

제2대대 왕청현 춘명향 서대파 유수하(榆樹河)

제3대대 왕청현 춘명향 서대파 대간자(大坎子)

제4대대 연길현(延吉縣) 수신향(守信鄉) 이도구(二道溝)

대체로 3개 대대는 주둔지가 왕청현 춘명향인 것으로 보아 대한군정서는 주로 왕청현을 중심으로 병력을 모집하였을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4대대는 연길에 주둔한 것으로 보아 연길지역도 대한군정서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한군정서는 관할 지역에서 30호를 1구(區)로 하여 각 구에서 18세~35세의 건강한 장정과 또한 지망자 중 15~25명을 선발하여 적격자는 즉시 입대, 나머지는 필요할 때 소집하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대한군정서의 관할 지역이 아닌 시베리아 연해주 혹은 국내에서도 병력을 모집하였다. 예를 들면, 연해주의 어업노동자와 광업노동자로 일하던 한인 중 시베리아 정국의 혼란으로 실직 중이던 이들에게 입대를 권유하여 상당수가 입대하였다. 또한, 1920년

112) 박현숙, 앞의 석사학위논문, 1988, 25쪽.

8월경에는 국내에서 청년들이 매일 3~40명씩 입대하였다고도 한다.¹¹³⁾ 일반병사가 아닌 장교와 간부급으로 대한군정서에 참여한 사람으로는 대한제국군대의 부위(副尉)¹¹⁴⁾였던 김규식·홍충식, 참위였던 김찬수·박형식 등이 있다. 이 중 홍충식은 이후 보병중대장의 직책을 맡았다.¹¹⁵⁾

입대한 장정들은 2~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입대하였다. 그중 정신력이나 학력이 부족한 사람은 사관연성소 지소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¹¹⁶⁾ 병사들의 훈련만큼이나 지휘를 할 수 있는 장교의 훈련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대한군정서는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를 설립하였다. 사관양성소는 1920년 2월에 대한군정서제1대대의 주둔지인 서대포 상촌에 위치하였다.

사관연성소 소장은 대한군정서 사령관인 김좌진이 겸직하였고, 교수부장은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나중소, 본부교사는 중국 운남의 강무학교 졸업생 이범석, 교관으로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던 이장녕, 러시아사관학교 출신 강필립 등 다국적 군사학교 출신자들이 포진하였다.

신민회 출신인 김좌진은 대한정의단으로부터 독립군 창설을 위임받으면서부터 서간도 신흥무관학교와 신흥학우단에 교관과 졸업생

113) 박현숙, 앞의 석사학위논문, 1988, 53-54쪽.

114) 대한제국의 군 계급 중 정위(正尉)와 참위(參尉) 사이의 계급.

115) 박현숙, 위의 석사학위논문, 1988, 31-32쪽.

116) 「북로군정서 관계자료」, 『나라사랑』 제44집, 1981, 142쪽; 박주신, 『간도 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522쪽.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신흥무관학교 교관 이장녕·이범석·이민화(李敏華, 1898~1923),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자 교관이었던 강화린(姜華麟, 1888~1960)·백종렬(白鍾烈)·최해(崔海, 1895~1948)·김훈(金勳, 1901~1936)·박영희(朴寧熙, 1896~1930)·오상세(吳祥世)·이운강(李雲岡, 1895~1972) 등이 합류하였다.¹¹⁷⁾

이들 대부분은 사관연성소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또한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대한군정서에서도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이장녕은 대한군정서 참모장, 이범석은 대한군정서 연성대장, 박영희는 사관연성소 학도단장 겸 대한군정서 사령관 부관, 이민화·백종렬·김훈은 연성대 중군장교, 강화린·오상세 등은 대한군정서의 중대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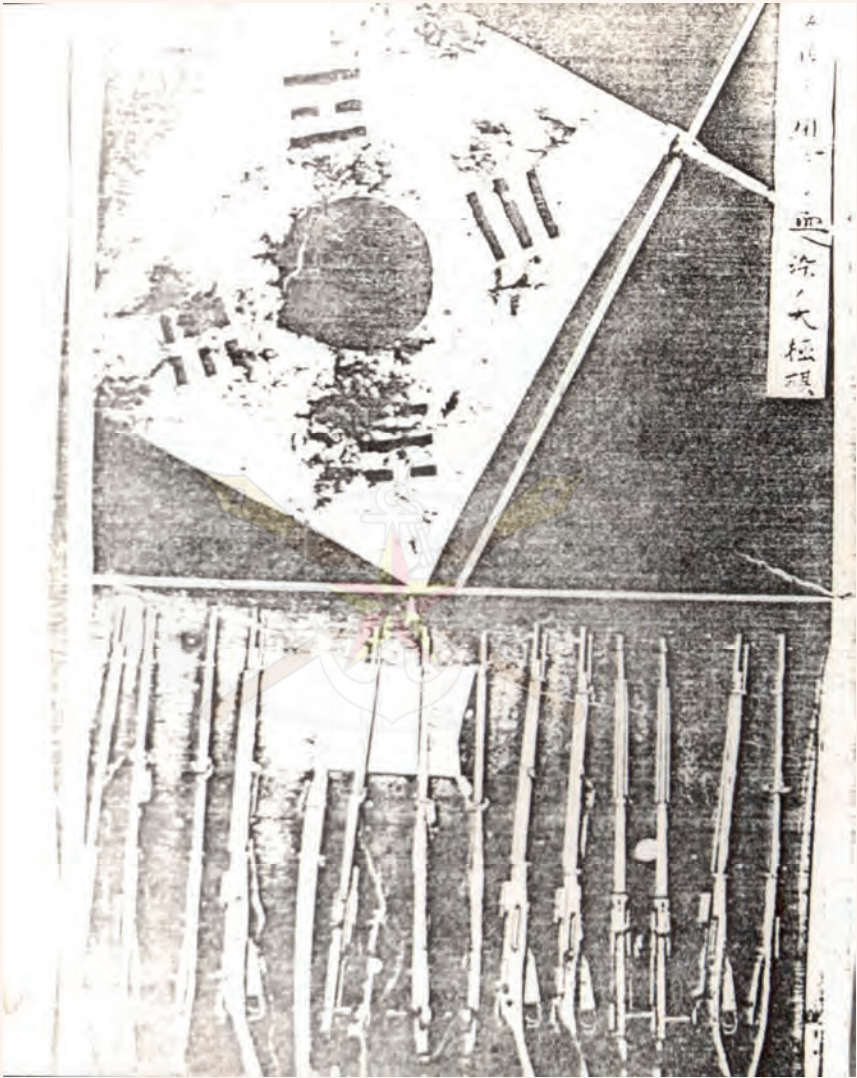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도단은 각각 150명씩 2개의 학도대로 편성하였고, 다시 각 학도대는 50명씩 3개의 구대(區隊)로 구성하였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중 백종렬·김훈·강화린 등이 구대장이었다.¹¹⁸⁾ 전문지식을 갖춘 지휘관양성은 신민회의 주요한 독립운동 방략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도 같은 맥락에서 설립·운영되었다.

학과 교육과 군사훈련을 통해 배출된 사관양성소의 제1기 졸업생은 298명이었는데 그중 3분의 2는 간도 출신, 나머지 3분의 1은 국내 출신자였다고 한다.¹¹⁹⁾

117) 신용하, 앞의 논문, 1988, 220쪽.

118) 신용하, 위의 논문, 1988, 221쪽.

119) 박현숙, 앞의 석사학위논문, 1988, 54쪽.



대한군정서태극기와 장총 ©독립기념관



이상 십리평 대한군정서서관연성소 터 ©독립기념관

근대 군사교범의 활용과 최해의 「훈련교본」

사관양성소의 입학생은 18~30세의 초중등 교육을 받은 신체 건강한 청년으로 선발하였다. 교육은 6개월의 속성과정이었다. 교육과목은 정신교육·역사(세계 각국 독립사 및 한일관계사)·군사학·술과(병기 사용법·부대 지휘운용법 등)·제조 및 규령법(叫領法) 등이 있었다. 군사훈련의 내용은 소총취급법, 제조, 학과훈련 등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과에는 보병조건, 군대내무서, 야외요무령, 축성교범, 육군형법, 육군징벌령, 군총취급방법이 다루어졌고, 중국어도 포함되어 있었다.

생도들은 매일 오전의 훈련에서는 제식훈련을, 오후의 훈련에서는 총검술과 사격술, 학과훈련을 철저히 받았다. 때로는 연병장에 일본 군 모형을 만들어 두고 이를 표적으로 실탄 사격훈련도 하였다.¹²⁰⁾

군사훈련은 기본적으로 대한제국군의 방법을 따랐으나, 사령관 부관이자 사관연성소 교관이었던 강필립은 러시아사관학교 출신이었으므로, 러시아식 훈련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흥무관학교 교관이었던 이범석도 본부교사로 훈련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상술한 바와 같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 교육과 훈련에 다수 참여하였다. 따라서 사관연성소의 훈련은 가깝게는 신흥무관학교의 영향이 컸을 것이고 멀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대한제국의 영향도 두루 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²¹⁾

120) 신용하, 앞의 논문, 1988, 219쪽.

121) 박환, 앞의 논문, 1990, 42, 53-545쪽.

사관연성소 생도는 모두 철저한 전투훈련과 교육, 그리고 연습을 거쳐 졸업한 인재들이었으나 졸업생이 모두 장교로 임관하지는 못했다. 다만 졸업생은 모두 소위의 자격과 소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독립군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지휘관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실제로 1920년 9월 9일 제1회 졸업식 후, 대한군정서는 대한제국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1개 보병대대를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때 제1회 졸업생 10명이 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나머지 인원으로 정예부대인 교성대(敎成隊)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대한군정서의 사관연성소가 배출한 최정예 인재들로 이후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되었다.¹²²⁾

위에서 언급한 교과목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는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이 발행한 교범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의 비서였던 이정(李楨)이 작성한 사령부 일지이다.¹²³⁾

대한민국 2년 7월 1일 목요일 청 (군정서 사령관의 장(章))
경신국장 채오규(蔡奎伍)씨의 청구에 따라 육군형법, 동 징벌령
각 40부를 인쇄실에 명령하여 수선하다.

122) 신용하, 앞의 논문, 1988, 223쪽.

123) 이정이 기록한 『진중일지』는 청산리 전투 전후 대한군정서의 주요인물과 내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으며, 이정은 독립유공자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다만 최근 한 TV 방송에서 기획 제작한 일제강점기 밀정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이정은 밀정으로 고발되며 우리 학계와 사회 문화계에서 '밀정'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었다(이재석, 「가짜 독립유공자를 고발하다: KBS〈시사기획 창-밀정2부작〉, 『신문과 방송』 통권586호, 2019, 78-81쪽).

7월 3일 토요일 청 (경신 5월 18일)

육군형법, 동 징벌령 각 40부를 경신국에 송부하다.

7월 26일 월요일 청 (경신 6월 11일)〈군호; 봉천〉

보병조전·군대내무서·야외요무령·축성교범·육군형법·육군
징벌령 등 인쇄물 각 1부를 독립군부 소대장에 출급하다.¹²⁴⁾

위 인용문에서 열거한 「보병조전」·「군대내무서」·「야외요무령」 등은 모두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가 발행하여 사용한 교재들로 대한군정서 인쇄국이 인쇄하여 독립군에게 보급하였다. 따라서 사관양성소에서도 이들 교재가 사용되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김좌진의 요청으로 북간도 독립군 양성에 합류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며 이후 대한군정서의 여단장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최해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독립군 「훈련교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최해가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여 「훈련교본」을 작성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의 「훈련교본」은 강령·총칙·도수·집총 등으로 내용이 구성된 근대적인 군사교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도 대한군정서의 병사 훈련은 물론이고 사관연성소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24) 「북로군정서 관계자료」, 『나라사랑』 제44집, 1981, 142쪽.

이처럼 북간도로 이주한 독립운동 인사들은 다양한 군사 인재를 수용하고 근대교범을 활용하여 독립군 양성에 매진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근대적 군사력을 양성하려고 했던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훈련 방식과 교재를 차용하여 근대적인 군사력을 갖춘 독립군 부대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최해, 『훈련교본』

제1편 교련

강령

제1, 군(軍)은 전투를 주제로 한다. 따라서 모든 일[百事]은 전부 전투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전투 일반의 목적은 적을 압도 섬멸하여 신속하게 전승[戰捷]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2, 전승의 요점은 유형과 무형의 각종 전투요소를 종합하여 적에 대하여 우수한 위력을 집중 발휘하여야 한다. 훈련을 실제와 같이 생각하며, 필승의 신념을 견고하게 하고 군기(軍紀)를 엄중하게 생각하여 공격 정신을 넘치게[充溢] 하며, 군대는 물질적 위력을 능가하면서 전승을 완전히 얻도록 해야 한다.

제3, 필승의 신념은 을지문덕·이순신 등의 경력을 통하여 전사(前史)를 들어 훈시하면서 이를 충실하게 배양하도록 지휘한다.

혁혁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쇠약하여 몰락한 우리는 충국애민(忠國愛民)의 정신을 연마하고

[砥礪], 적극 훈련에 익숙하도록[情熟] 더욱 연구하여 [增究] 전투가 참렬(慘烈)한 극한 상황에 몰락하더라도 상하(上下)가 서로 믿으면서 필승의 확신을 가지고 전승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제4, 군기는 군대의 명맥(命脈)이며 또한 사명(使命)이다. 전선(戰線)에 당하여 어떠한 입장과 경우에 봉착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임무를 가진 수만(數萬)의 군대라도 위로는 장수(將帥)로부터 아래로는 일개 병사까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일정(一定)한 방침(方針)에 응하고 따르며 모두의 마음이 일치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이 곧 군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기의 요소는 복종하는 데 있다. 전군(全軍)의 장병이 지성(至誠)으로 상관(上長)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굳게 지킴으로써 제2 천성(天性)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要望].

제5, 종종(種種) 병전(兵戰)은 독단으로 할 일이 파다(頗多)하다. 그러나 독단(獨斷) 시는 그 정신이 군기에 위반(違越)하지 않고 항상 상관의 의도를 명찰(明察)하고 따르며, 입장과 환경을 판단하여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스스로(自體) 그 목적을 달성할 만한 방침과 방법을 선택하여 시기와 형편에 맞추어 실행하여야 한다.

제6, 군대는 항상 공격 정신[攻伐情神]이 넘치고[充溢] 의지와 기개가[志氣] 왕성하여야 한다. 공격 정신은 충국애민(忠國愛民)의 지성(至誠)으로써 발생한 군인정신의 정화(精華)이며 공고(鞏固)한 군대의 의지와 기개의 표징(表徵)이며 위엄의 상징[武徵]이라. 무예[武技]에 정통하고[致精] 교련으로 빛을 발하여[放光] 전투의 승리[捷]를 완전히 획득[完得]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패는 반드시 그 수로 승전이 되지 않고 잘 훈련함으로써 얻은 공격 정신이 풍부한 군대라야 한다. 소수(少數)의 병력이라도 다수(大數)의 적을 베고 멸하여[伐滅] 승과(勝果)를 얻을 수 있다.

제7, 협동일치는 전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극 중요하다. 어떤[何] 병종(兵種)을 막론하고 상하(上下)를 불문하며,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함께하여[戮力協心] 전군(全軍)이 하나가[一體]됨으로써 비로소 전투의 성과를 획득할만한 전반의 정세를 고찰하여 각각 그 직책(職責)을 중시한 후, 한뜻으로 임무의 수행에 노력하는 것이 즉 협동일치의 취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병종(兵種)의 협동은 보병(步兵)으로서 그 목적달성의 주안(主眼)으로 하여 이를 행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

제8, 전투는 최근 몇 년간[輓近] 복잡하고 강인한[複雜鞏強]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충실한 장비[資材]와 원만한 보급을 받드시[반다시] 기대하기 어렵다[難望]. 따라서 군대는 굳게 참고 견디면서 뜻을 바꾸지 않고 [堅忍不拔] 괴롭고 곤궁함[困若缺乏]에 봉착하여도 능히 이것을 참고 난국을 타개하면서 전승의 한 길[一途]에 매진해야 한다.

제9, 적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승리를 빼앗을 묘책이다. 따라서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의견을 좇아[追隨創意] 신속[神速]하게 기동[機動]함으로써 적에 대해 주동의 위치에서 전군이 서로 싸우며[相戎] 아군[我軍]의 계획을 엄밀히 하여 날쌔고 과격[疾風迅雷] 적에 대응할 묘책을 강구[講究]하는 것이 중요[緊要]하다.

제10, 지휘관은 군대 지휘의 중추[中樞]이며 또한 그 단결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항상[常時] 부하와 고락[苦樂]을 함께 하며[同俱] 솔선하여 군대의 의표[儀表]가 되어 그 존경과 신뢰를 얻고, 치열한 전투[劍電彈雨] 중에도 버티고 서서[敢立] 용맹스럽고 침착하게 대응하여[勇猛沈着], 부하가 믿고 따르도록[仰信] 한다.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주저하면[遲疑] 전[全] 군대가 위태하게 되는 잘못된 계책[誤策]이 되므로 지휘관은 반드시 힘써 싸워야 한다.

제11, 보병은 군의 주병(主兵)으로써 그 본령(本領)은 항상 전장(戰場)에서 주요한 임무를 부담하며 지형 또는 시기의 여하(如何)를 막론하고 전투를 실행하여 최종의 승(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에 근접한[敵近後] 전투 또는 야전(夜戰)에서 그 특색은 더욱 현저하고 그 전투는 점점 참렬(慘烈)하게 된다. 따라서 보병은 담력이 강하고[剛膽] 인내심[耐忍]이 풍부하며 침착하고 용감하여 능히 사격[射伐] 또는 돌격[突伐]으로써 적을 물리쳐야 한다.[破摧] 만약 다른 병종(兵種)의 협동이 없더라도 백방(百方)의 수단으로 스스로[自體] 전투를 준비하고, 또 이를 수행(遂行)하여 분전(奮戰)으로써 최종의 목적을 달성하여 그 맡은 바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병은 평시 그 전투력을 충실하기 위하여 병기(兵器)를 귀하게 여기고 탄약을 절용(節用)하며 마필(馬匹) 수확하는 것을 중히 해야 한다.

제12, 전투에 있어서는 모든 일[百事]을 간단하게 하고 더욱 정련(精練)·충실(充實)하기를 기한다.

전령(典令)은 이 취지(趣旨)에 기반하여 군대 훈련상 주요한 원칙·법칙과 제식(制式)을 표시하였으므로 이것을 운용 여하에 따라 빼어나게 운용[妙運]하

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는 공부(工夫)하고 연구하여 본령(本領)의 실효를 발양(發揚)함으로써 유일한 세계 강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緊要].

총칙(總則)

제1, 교련의 목적은 모든 제식(制式)과 또는 전투의 모든 법칙을 통달시키고 기율(紀律)을 엄정히 하고 정신이 공고한 단결심을 단련(練成)케 함으로써 사회 여러 요구에 대응하게 하는 것이다.

동작이 숙달되고 기술이 교묘(巧妙)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신이 충실치 아니한 교련은 그 진실(眞實)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평시(平時)에 각자의 본분을 자각하고 복종의 본의(本義)를 지키며 성의(誠意)를 가지고 힘써야[奮勵] 한다.

제2, 교련의 제식과 법칙은 전투의 요구에 따른 훈련의 목적에 맞추어 경중을 정할 뿐만 아니라 각 제식과 각 법칙 중에도 서로서로 주객(主客)의 부분이 있으므로 교관은 이것을 잘 판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 육군에 있어서는 전투의 기초가 될 모든 교련은 평사보병포분대(平射步兵砲分隊)와 곡사보병포소대(曲射

歩兵砲小隊)에서 이것을 완성함으로, 대대(大隊) 이상은 주로 모든 종류의 전황에 적응할 만한 각 부대의 협동 동작을 훈련하고 또 다른 병종(兵種)과 연합하여 전투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제4, 전장은 물론, 비상시에는 야간행동하는 때가 많다. 야간행동은 주간보다도 또한 주의할 점이 많은데, 주간보다 더욱 정숙하고 신속하게 예상[豫期] 지점에 도착하여 그 임무를 달성하도록 행동을 숙달하도록 한다.

제5, 전장에 있어서는 항공과 지상의 적에 대하여 아군의 계획과 행동을 극력 비밀하게 한다. 따라서 교련의 실시에 따라 음영(陰影)을 이용할 차폐(遮蔽), 위장(偽裝) 혹은 거짓[僞] 행동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제1장 각개교련(各個教鍊)

통칙(通則)

제6, 각개교련의 목적은 모든 제식과 모든 법칙을 숙지하여 습득하며 정신을 단련하고 기율을 숙련함으로써

부대 교련을 든든하고 굳건하게 하는 기초를 만드는 데 있다.

제7, 교련을 행할 시는 각자 그 목적과 정신을 이해하며 그 요점을 해득(解得)하여 실행 시에 실현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교련 시 형식에만 취(取)하면 결국은 교련도 필요성이 없게 된다.

제1절 도수(徒手) 집총(執銃)

부동자세(不動姿勢)

제8, 부동자세는 기본자세이므로 평소에는 굳건(確乎)한 정신이 넘치고 외형(外形)도 엄숙(嚴肅)하고 단정(端正)해야 한다.

제9, 부동자세를 취하려면 다음[左]의 구령(號令)을 붙인다.

‘차렷’

양 발꿈치(兩踵)를 일선(一線)으로 같이하고 양발(兩足)을 약 60도로 벌이며 양 무릎(兩膝)을 곧게 펴고 양어깨(兩肩)를 조금 뒤로 젖히며 양팔(兩臂)은 자연스러운 태도로 가지런히 내리며(正垂) 중지(中指)를 대략 바지(袴)의 봉선(縫線)에 대고 턱을 앞으로 당기

어 머리[頭上]는 반듯하게 하며 입은 다물고 두 눈[兩
眼]은 바로 떠서[正開] 정면을 직시한다.

제10, 휴게(休憩) 시는 다음과 같이 구령을 붙인다.

‘쉬엿(쉬어)’

먼저 왼발[左足]을 앞으로 내고[前出] 오른발[右足]은
제자리[舊所]에다 두고 신체의 중심을 오른발에 두고
직립한다. 휴게 시라도 허가 없이 사담(私談)을 금
(禁)한다.

우「좌」향, 반우「반좌」향과 「후향(後向)」

제11, 우「좌」향 혹은 반우「좌」향 시는 다음과 같이 구령을
붙인다.

‘우향우’/‘좌향좌’/‘반우향우’/‘반좌향좌’

우(좌)향 시의 각도는 90도, 반우(좌)향 시는 45도로
하며, 우(좌)향이나 반우(좌)향이나 다 향할 시는 오른
발 끝[尖]과 왼발 [尖]을 조금 지선(地線)에서 들어서
오른 발꿈치[右踵]를 왼 발꿈치[左踵]에 붙여서 돈다.

제12, 후향(後向) 시는 다음과 같이 구령을 붙인다.

‘도라 웃(뒤로 돌아)’

오른발을 착지(着地) 직선(直線)으로 뒤로 끌어[後引] 두 발끝을 조금 들고 양 발뒤꿈치로써 우편으로 후향하여 오른 발뒤꿈치를 왼 발뒤꿈치와 일직선이 되게 끌어다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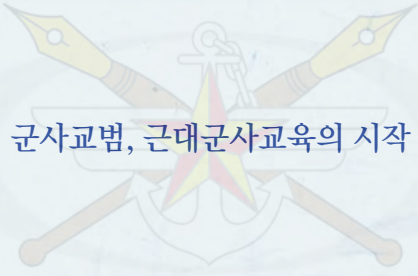
행진(行進)

제13、행진은 용감하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勇往邁進].

제14、속보(速步)는 일보(一步)의 거리가 발뒤꿈치에서 발뒤꿈치까지 약 75센티미터[糶], 속도는 1분간 약 114보를 기준으로 한다. 속보 행진 시는 다음과 같이 구령을 붙인다.

‘앞으로 갖(앞으로 가)’

※ 원문 출처: 「훈련교본」 원본, 독립기념관 제공.
의역: 필자



군사교범, 근대군사교육의 시작

제3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교범





제3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교범*

제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사교범 편찬을 추진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조직구성

3·1운동 직후 국내외 등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해(上海)로 모여들었다.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 된 상해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망명하여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또한 1917년 신규식(申圭植)·조소앙(趙素昂)·박은식(朴殷植) 등이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을 발표했던 곳이었으며, 1918년에 조직된 신한청년당이 활발한 한국 독립활동을 전개한 공간이기도 하다. 상해는 ‘조계(租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억압과 감시를 피해 활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해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최적지로 인식되었다.

* ‘제3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교범’은 다음의 논문을 논문 저자의 동의하에 받아 수정·보완하여 수록하였다(김민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편찬과 성격」, 『군사연구』 144, 육군군사연구소, 2017).



1930년대 초 상해 황포탄 전경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29명의 사람들이 상해 프랑스 조계에 있는 김신부로(金神父路) 60호에서 회합하였다. 독립국 건립과 준비가 모임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들은 가장 먼저 회의의 명칭을 논의하였다. 모임의 명칭으로 조소앙은 ‘임시의정원’을 제안하였고, 신석우가 재청하면서 그대로 가결되었다. 임시의정원이 탄생한 것이다. 임시의정원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의회 조직체로, 오늘날 국회의 기원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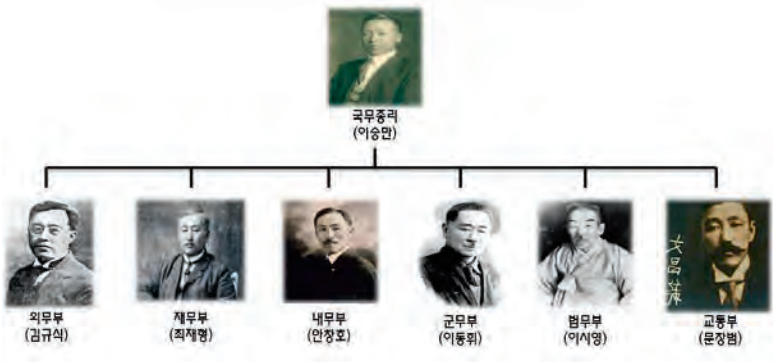
명칭을 결정한 후 임시의정원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었다. 여운형(呂運亨)의 동의에 따라 선거는 무기명 단기식 투표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의장에 이동녕(李東寧), 부의장에 손정도(孫貞道)를 선출하였고, 서기로 이광수(李光洙)와 백남칠(白南七)을 선출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후 3·1독립선언을 통해 천명한 ‘독립국’건

립을 주제로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밤을 새워 진행된 회의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먼저 국호가 결정되었다. 신석우(申錫雨)가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자고 동의하였고, 이영근(李洪根)이 재청하면서 그대로 가결되었다. 1910년에 망한 ‘대한제국’이 아닌,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국(民國)’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민국’이라는 국호의 제정은 한국 역사상 민주 공화제가 최초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정부 구성에 들어갔다. 국가의 운영·유지를 위해 관제(官制)를 정하고, 국무원(國務院)을 선출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한성 임시정부에서 보내온 관제를 검토하여 집정관제를 총리제로 변경하였고, 군무부와 법무부를 증설하였다. 국무원에는 외무·내무·재무·교통·법무·군무의 6부를 두었다. 그리고 이승만(李承晩)을 국무총리, 안창호(安昌鎬)를 내무총장으로 한 정부의 각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하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임시헌장」 제정에는 조소앙·신익희(申翼熙)·남형우(南亨祐) 등 법조계 출신 또는 법률을 전공한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총 10개 조로 구성된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이라고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를 규정하였고, 남녀평등, 교육·납세·병역 의무, 선거권 등과 같은 기본권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도

이로써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국무총리를 행정 수반으로 한 정부 조직들을 갖춘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임시정부 군무부의 군사교범 편찬

정부로서의 조직을 갖춘 임시정부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 4차례에 걸쳐 시정방침을 발표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밝혔다. 여기에는 내정·외정·군사·교육·재정·문화의 각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군사 활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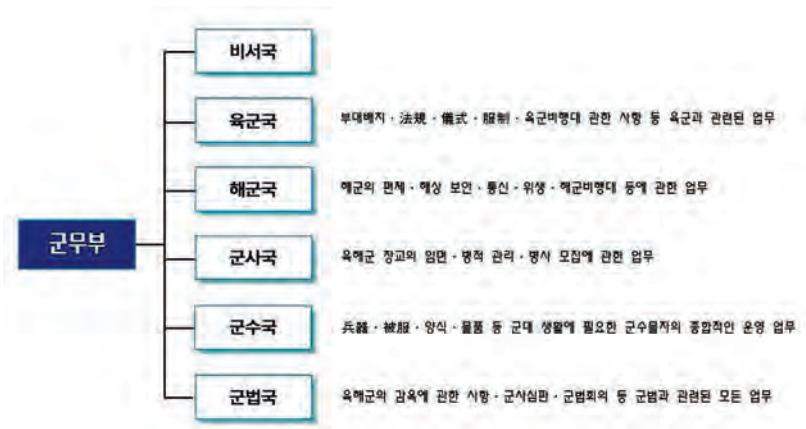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군사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군사 활동에 관한 기본 방향은 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제도와 법령 마련, ② 만주지역 독립군 조직의 통할·지휘, ③ 군사 간부양성과 모병 활동 전개 등 크게 세 부분이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관련 법규를 마련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임시헌장」 제6조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인민(人民)은 교육(教育), 납세(納稅) 및 병역(兵役)의 의무(義務)가 유(有)함”이라고 하여 국민의 병역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9월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 제10조에도 병역의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더 나아가 군사 활동을 추진할 부서 설치에 관련 법령도 마련하였다. 1919년 4월 25일 제정하고 발표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大韓民國臨時政府章程)」에는 임시정부의 각 부서가 담당할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 군무부의 조직과 직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군무부는 임시정부의 군사정책 수립과 이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었다. 육·해군 군정(軍政)에 관한 사무는 군무총장이 통합 관리하였다. 또한, 그 산하에 비서국(祕書局)·육군국(陸軍局)·해군국(海軍局)·군사국(軍事局)·군수국(軍需局)·군법국(軍法局)의 총 6개국을 두고 군사 활동을 추진하게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조직도

군무부에 소속된 각각의 조직은 고유한 임무가 있었다. 우선, 육군국은 부대 배치·법규(法規)·의식(儀式)·복제(服制)·육군 비행대에 관한 사항 등 육군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해군국은 해군의 편제·해상 보안·통신·위생·해군 비행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군사국은 육·해군 장교의 임면·병적 관리·병사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군수국은 군대 생활에 필요한 병기(兵器)·피복(被服)·양식·물품 등 군수물자에 관해 종합하여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군법국은 육·해군의 감옥 관련 사항·군사심판·군법회의 등 군법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은 군무부를 통해 폭넓게 추진되었다. 1919년 12월 18일 임시정부는 군무부령 제1호로 「대한민국육군 임시군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大韓民

國陸軍臨時軍區制)」·「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臨時陸軍武官學校條例)」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군사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규정들은 군사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병력을 모집과 군사 간부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총 3편 55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는 군대의 편성 및 정원·병역·징모(徵募)와 소집·군적·군기의 징벌·동원·조직 및 기관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군사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는 병력을 모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만주·노령지역의 한인 사회까지도 임시정부의 통치권역에 포함하면서 군구(軍區)를 서간도 군구·북간도 군구·강동 군구의 3개로 설정하였다. 당시 만주와 노령지역에는 일찍부터 이주해 온 한인들이 정착촌을 이루고 있어 병력을 모집하기에 적격이었다. 임시정부는 해당 지역의 만 20세 이상~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모병하려고 하였다.

「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는 군사 간부양성에 관한 규정이다. 무관 후보의 조건은 19세 이상~30세 이하의 남성 중 중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에는 이들 대상자를 12개월 동안 교육한 후 참위로 임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정부는 이 조례에 따라 군무부의 직할기관으로, 군사

간부를 양성할 수 있는 육군무관학교를 상해에 설립하였다. 군무부 차장 김희선(金羲善)과 군무부 군사국장 도인권(都寅權)이 운영을 맡았다. 문병무(文秉武)·김철(金鐵)·황학수(黃學秀) 등은 학도대 중대장과 교관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책임졌다. 1920년 5월에 제1기생 19명과 12월에 제2기생 2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임시정부는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고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만주지역의 독립군 조직들을 통합·지휘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았다. 그 일환으로 임시정부는 독립군의 재편과 전쟁 수행을 위해 군무부를 만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 1920년 2월 23일부터 진행된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윤기섭 등 5인이 제출한 ‘군사에 관한 건의안’을 시켰다. 이 건의안에는 “군무부의 육군(陸軍)·군사(軍事)·군수(軍需)·군법(軍法)의 4국(局)과 기타 모든 군사기관을 만주에 이치(移置)할 것”과 같은 만주지역 독립군의 통합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요컨대 임시정부는 군무부의 주요 부서를 만주로 이전하여 만주와 노령지역에 군구를 설치하고, 동시에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 단체들을 지휘·통할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였다.

당시 만주에는 많은 독립군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만주지역의 독립군들을 임시정부 산하로 편제하려고 하

였다. 제2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간도의 대한군정서와 서간도의 서로군정서가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로 편제되었다.

한편 군무부는 군사정책 수립과 간부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군사교범의 편찬과 보급도 중시하였다. 앞서 설립된 만주와 노령 등지의 독립군 양성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임시정부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사교육과 훈련을 하여 능력 있는 간부와 병사를 갖춘 근대적인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병사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군사교범의 발간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1920년 10월 8일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교령 제11호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軍務部臨時編輯委員部規程)」가 바로 그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무관학교 제2회 졸업식
신문기사(『독립신문』 1921년 1월 1일)

교령(敎令) 제11호 :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

제1조 군사교육(軍事敎育)에 필요(必要)한 교과용(敎科用) 도서(圖書)를 편집(編輯)하기 위(爲)하여 임시편집위원부(臨時編輯委員部)를 치(置)함

제2조 임시편집위원부(臨時編輯委員部)에 하(下)의 직원(職員)을 치(置)함

위원장(委員長) 1인(人)

위 원(委 員) 약간인(若干人)

제3조 위원장(委員長)은 군무총장(軍務總長)의 명(命)을 승(承)하여 소관사무(所管事務)를 장리(掌理)하며 위원(委員)을 감독(監督)함

제4조 위원(委員)은 상관(上官)의 지휘(指揮)를 승(承)하여 도서편집급(圖書編輯及) 기록편존(記錄編存)과 기타(其他) 서무(庶務)에 종사(從事)함

제5조 위원장(委員長)이 사고(事故)가 유(有)한 시(時)는 군무총장(軍務總長)이 지정(指定)한 위원(委員)으로 기사무(其事務)를 대리(代理)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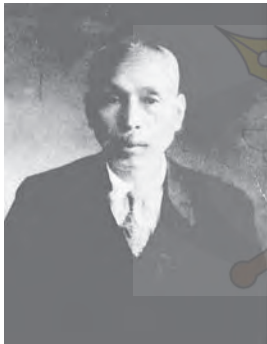
제6조 위원장(委員長)이 필요(必要)로 인(認)하는 시(時)는 군무총장(軍務總長)의 허가(許可)를 경(經)하여 촉탁원(囑託員)을 치(置)함으로 득(得)함

부칙(附則)

제7조 본령(本令)은 공포일(公布日)부터 시행(施行)함

교령 제11호에 따라 군무부의 직할기구로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가 설치되었다.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군사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제작·편집·발행이었다. 위원장에는 윤기섭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임명 직후 즉시 군사교범 편찬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보병조전초안』이었다.

사실 신흥무관학교도 군사교범을 만든 적이 있는데, 당시 이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윤기섭이었다. 즉, 윤기섭이 위원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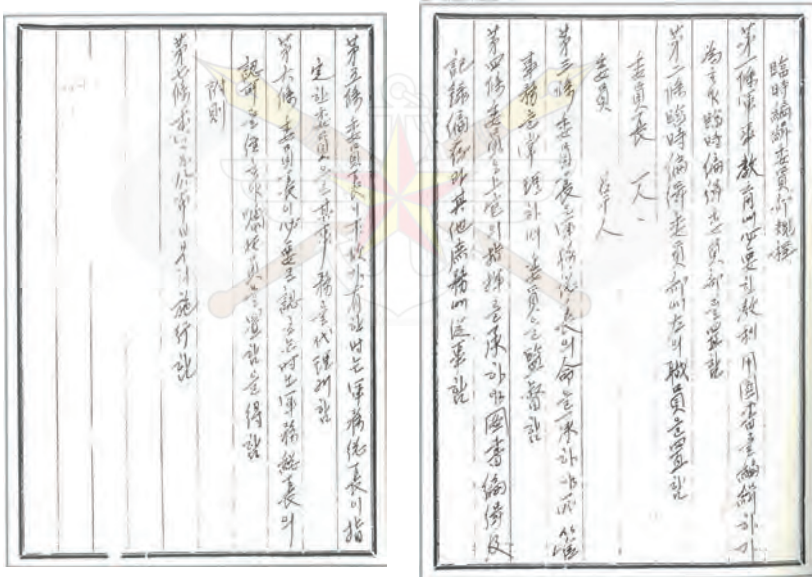
윤기섭

선임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학감·교감·교장 등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윤기섭은 학교 운영과 군사훈련 등에 남다른 경험이 있었다. 즉, 10년 가까이 신흥무관학교에 재직하면서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기섭은 임시정부가 추진하는 군사교육에 꼭 필요한 인재였다.

무엇보다도 윤기섭은 자신이 군사훈련을 담당하면서 직접 교재를 제작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였던 원병상의 회고에 따르면, “병서(兵書)는 윤기섭이 일본 병서와 중국 병서를 구하여 번역하고 그중에서 새로운 병서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특히 구령(口令)을 통일시켰다”고 하였다. 이

처럼 윤기섭은 일본과 중국 등 여러 병서를 참고하여 스스로 새로운 훈련 교범도 개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기섭은 군무부 임시편집위원부의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한글로 된 군사훈련 교범을 편찬하였는데, 『보병조전초안』이 바로 그것이다. 『보병조전초안』은 윤기섭이 신흥무관학교 시절부터 축적한 군사 지식과 자료, 훈련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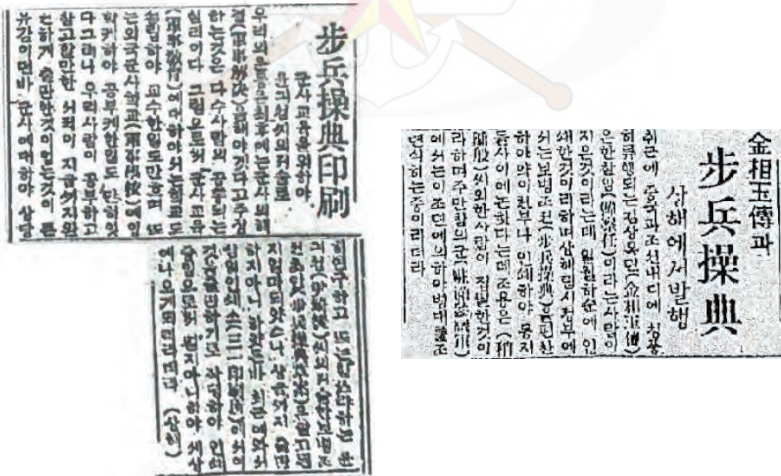


교령 제11호 : 군무부임시편집위원부규정

제2절 『보병조전초안』, 세상에 나온다

『보병조전초안』의 해제

윤기섭이 집필한 『보병조전초안』의 발간 소식은 『동아일보』에 의해 국내에 가장 먼저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에서 발행하는 『보병조전초안』이 삼일인쇄소에서 인쇄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병조전초안』을 약 2,000부가 인쇄하여 각지로 배포하였다. 임시정부 산하의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는 『보병조전초안』을 기반으로 군사 조직을 구성하고 간부와 병사들을 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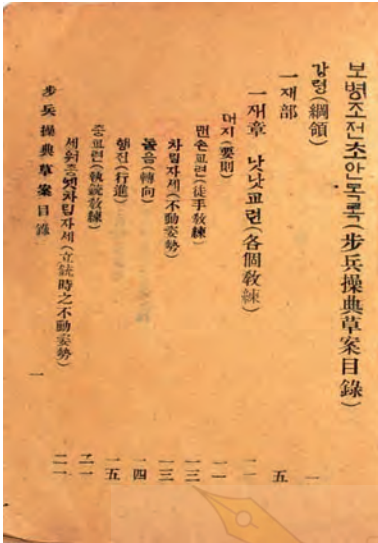


「보병조전인쇄」, 『동아일보』, 1924년 1월 22(좌)
 「김상옥과 보병조전」, 『동아일보』, 1925년 4월 2일(우)

『보병조전초안』은 강령, 제1부, 제2부, 제3부 및 부록 등 9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62쪽이었다. 강령은 보병(步兵)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보병조전초안』의 전체적인 서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부는 낫낫교련¹²⁵⁾에서 여단(旅團) 교련에 이르는 전술의 기본개념과 제식훈련, 제2부는 상황에 따른 각종 전술 운용과 각기 다른 병종의 합동 전술을, 제3부는 군인이 갖추어야 할 예의, 군도 및 나팔의 사용법을 기술하였다. 부록에는 한글 읽는 법과 보병부대가 사용하는 호령뿐만 아니라 대대와 연대가 훈련할 때 운용되는 전술을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며 서술하였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제1부 「교련」과 제2부의 「싸움의 원칙」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제1부 「교련」은 총 98개 항목 중 76개 항목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래 대한제국 『보병조전』은 병사들의 기본제식훈련을 위해 편찬된 교범이었다. 제1부의 내용이 전체 항목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제국 『보병조전』처럼 기본훈련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한 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목차구성이나 서술 내용도 유사함을 보이는데 그 체제도 대한제국 『보병조전』의 것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5) ‘낫낫교련’은 현대어로 ‘각개교련’을 의미한다. 본 저서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낫낫교련’으로 표기하였다.



『보병조전초안』의 표지와 목차

제2부 「싸움의 원칙」은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 항목 수는 제1부 「교련」보다 상당히 적지만, 내용의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병조전초안』만이 갖는 독특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제2부 「싸움의 원칙」은 전투의 요령, 공격, 방어, 추격, 퇴각, 야전, 지구전, 산지전, 하천전, 산림전, 주민지전, 합동 공격 등의 여러 상황에 대한 전투와 전술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대한제국 『보병조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윤기섭이 전술과 관련된 여러 군사교범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부 「경례와 관병의 법식·군도와 나팔의 다름」은 7개 항목, 부록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경례법’, ‘관병식’, ‘보병의 호령 모음’, ‘대대와 연대의 전술 전개’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 중 부록에 기술된 ‘대대와 연대의 전술 전개’는 설명뿐만 아니라 전술 변화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당시 사용된 대대와 연대의 전술 운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보병조전초안』은 목차구성과 항목 수를 보면 다른 교범들처럼 훈련의 가장 큰 비중을 「교련」에 두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보병조전초안』의 체제는 이전의 군사교범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는다. 요컨대 다른 군사교범들이 기본적인 제식과 교련 훈련에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다면, 『보병조전초안』은 실전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전술운영을 익힐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는 군사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한, 실제 전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기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보병조전초안』은 종합적인 성격의 군사교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보병조전초안』의 해부, 독립군의 훈련을 살펴보다

제1부 - 기초군사교육의 전형

제1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제1부의 목차이다.

1. 낮낮교련
2. 중대교련
3. 대대교련
4. 연대교련
5. 여단교련



제1부는 각 제대에서 행해지는 교련의 개념과 기본동작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소대교련은 중대교련에서 함께 다루고 있어 빠져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본격적인 제대별 교련에 앞서 교육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련의 목적, 교련 훈련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지휘관의 역할과 임무 등.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교련의 목적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휘관(指揮官)과 병정(兵丁)을 훈련(訓練)하여 모든 제식(制式)과 싸움의 모든 법칙(法則)을 연습(練習)하게 하고 그 동시(同時)에 군기(軍紀)가 엄정(嚴正)하고 정신(精神)이 단단한 군대(軍隊)를 만들어 싸움의 모든 요구(要求)에 맞게 함이 있나니라.

이는 교련이 모든 제식의 기본이 되며, 군기가 바로 선 군대를 조직하는 근간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1장 낫낫교련에서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제식과 교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부대교련을 실시하기에 전에 병사가 각자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련을 학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맨손교련(徒手教鍊), 총교련(銃教鍊), 산병교련(散兵教鍊)이 있다. 맨손교련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훈련이다. 총교련은 총을 들고 하는 훈련이다. 산병교련은 밀집된 군대나 병력이 적당한 간격으로 벌려 훈련을 하는 것이다.

제1장은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낫낫교련에서 물든 번습은 늘 박히어 있어 이를 없이하기가 어려우며 낫낫교련의 완전치 못한 것은 부대교련에서 채우기도 또한 어려우니라 …(중략)… 낫낫교련은 교육의 각 시기를 따라서 늘 시키어야 하나니라

즉, 처음 동작을 잘못 익히면 나중에 그 동작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기본교련은 매번 교육 때마다 실시하여 반복·숙달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자세에 대한 개념 설명, 구령, 이동 간 제식, 발의 각도, 간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교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제1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총교련’이다. 당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총이었다. 따라서 ‘총교련’ 부분에 역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총교련에서는 세워 총, 메어 총 동작을 정지간 동작과 이동간 동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탄창의 끼고 빼는 동작과 사격술 등 총기 다루는 방법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전의 중요한 요소인 탄알 장전법, 사격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서서 쏘, 꿰어 쏘, 옆드려 쏘는 현재에도 사용하는 사격방법이다.

제2장은 중대교련을 설명하고 있다. 중대교련에는 소대교련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대 단위를 별도 편제하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구별되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중대 단위가 독립군 부대의 기본 편제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된다. 제2장에서는 부대의 구성, 번호, 정돈, 방향전환, 사격, 행진, 돌격, 해산, 집합, 추격, 퇴각 등을 설명하였다.

중대교련에는 전술훈련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전

술훈련은 전투작전에 각종 상황을 적용하여 하는 부대훈련을 의미한다. 중대교련에는 대형의 변화에 따른 공격 및 방어,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형변화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그 외에도 전투 전개에 따른 상황 대처 요령과 전술훈련 시의 주의사항을 더하였다.

중대교련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혈음’이다. ‘혈음’이란 병사들이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행진, 정지, 사격, 돌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지혈음, 행진혈음, 횡대혈음, 좁은 간격 혈음, 넓은 간격 혈음, 방향 바꿈 혈음을 비롯한 정지모임, 행진모임, 아울러 모임, 전진운동, 퇴각운동, 약진, 기어나감, 빗겨행진, 짓침, 자리의 고름, 여러 자세에서의 탄알장전 등 혈음과 관련된 다양한 전술을 소개하였다.

‘혈음’에서 중시되는 것은 빠른 상황판단과 사격술이었다. 소수의 병력으로 일본의 정규부대와 전투하려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사격 전술이 필요하며, 적절히 치고 빠질 수 있는 상황판단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제3장 대대교련, 제4장 연대교련, 제5장 여단교련은 기본적인 내용은 앞 장의 것들을 따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용이 소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병조전초안』에서 여단교련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당시에 병력을 확충하여 여단급까지 부대를 유지하고 운영하려고는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제2부 - 전술훈련의 다양성

제2부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싸움일반의 요령
2. 치기(攻擊)
3. 막기(防禦)
4. 추격·퇴각(追擊·退却)
5. 밤싸움(夜戰)
6. 버림싸움(持久戰)
7. 산싸움·강내싸움(山地戰及河川戰)
8. 숲싸움·마을싸움(森林戰, 住民之戰)
9. 다른 병종에 대한 보병의 동작

제2부는 실제 전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고 부대 전술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전투의 원칙에 비추어 능히 실제에 응용함으로써 조선의 본뜻을 삼나니”라 밝힌 것을 통해, 제2부가 『보병조

전초안』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병조전초안』의 핵심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부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제1장에서 제4장까지로, 일반적인 전투에서 벌어지는 공격과 방어 전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제5장에서 제9장까지로,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제2부는 일반적인 전투요령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각 전투상황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서술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계기와 지휘관들의 상황판단을 강조한다. 즉, 전투가 어떻게 처음 벌어지게 되는지, 그 경우에 지휘관들은 어떤 판단과 조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싸움은 보통(普通)으로 앞에 있는 기병(騎兵)의 적(敵)과 부딪힘에 말미암아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경계부대(警戒部隊)들과 같은 특별(特別)한 임무(任務)를 가진 부대(部隊)를 인(因)하여 시작(始作)되나니. (중략) 지휘관(指揮官)은 빨리 쓰일만한 배비(配備)를 하여 적의 전진을 막고 적정(敵情)

과 지형을 정탐하여 이 뒤의 결심과 처치를 함에 필요한 자료와 시간을 주며 그 동사에 우리 군사의 동작을 적에 대하여 숨기기를 힘쓸지니.

2) 보병·포병·공병·기병의 연합작전 공격을 중요시한다. 이는 『보병조전초안』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보병조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병에 관해서만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포병·공병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보병조전초안』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보병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포병, 공병, 기병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병조전초안』이 다른 군사교범과는 달리, 종합적인 군사교범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병은 보병의 공격이 위력을 보이지 못할 때, 포와 기관총으로 적의 보병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집중사격하여 보병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병은 보병 부대가 지나갈 길을 열고 장애물을 없애는 등의 활동을 한다. 기병은 적진을 수색하고 보병과 포병을 엄호하여 그들이 싸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술 방법을 담고 있다. 지형지물의 이용은 제1부 「교련」에서도 다루었던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당시 독립군들의 무기와 전투력은 그다지 강하지 못했으며 병력도 적었다. 반면, 정규군을 갖춘 일본군은 식량과 무기, 병력을

지속해서 지원받았으며 그들의 무기와 전투력은 독립군보다 월등했다. 이러한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독립군의 주요 전술은 바로 유격전이었다. 한 지역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기습공격을 하는 것만이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 전술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지형지물의 활용은 독립군 전술의 핵심이었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술 방법을 설명한 부분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전략 전술이다. 제5장은 밤싸움을 기술하고 있다. 밤싸움은 병력을 숨기고 적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낮 공격보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특히 서로의 연락과 분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6장은 버림싸움이다. 버림싸움이란, 지구전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과 전면전을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 방법이다.

제7장과 제8장은 산, 강, 숲, 마을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기술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은 독립군들이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를 통해 경험했던 것들이었다. 따라서, 『보병조전 초안』에는 그동안 다양한 전투를 통해 독립군들이 쌓은 경험이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부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다른 병종에 대한 보병의 동작’이다. 이는 독립군이 일본군의 기병·포병을 상대할 때,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선 적 기병과의 전투에서는 사격으로 적 기병의 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적의 포병과 전투할 때 거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거리가 멀면 포병이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의 포병에 근접 공격할 것을 권한다. 반면, 보병이 적 포병의 공격을 받을 때는 대형을 바꾸거나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사격을 혼란스럽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3부 - 경례와 관병식

제3부는 장 구분이 없으며 분량도 앞의 제1부와 제2부보다 매우 적다. 제3부의 주된 내용은 군대에서는 가장 기본이면서 엄정

하게 다루어져야 할 경례와 관병식, 그리고 군도와 나팔의 다루는 법이다.

경례는 집총 시에 해야 하는 받들어 총과 세워 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만큼 자세한 동작법을 설명하고 있다.

관병식은 대형을 대대 횡대로 한 줄에서 세 줄로 하고, 분열식 대형은 중대종대로 하도록 제시하였다. 아쉬운 점은 대형을 갖추는 때 대원의 위치와 간격, 분열 시의 동작과 이동 경로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군도와 나팔을 다루는 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각급 지휘관·준사관·하사가 군도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도의 착용 방법과 정지간 및 이동간 말(馬) 위에서 군도를 사용하는 방법, 군도를 빼고 나서 사용할 때의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록 - 이해를 돕는 순우리말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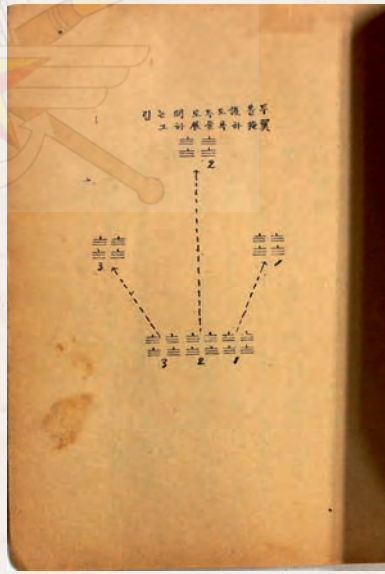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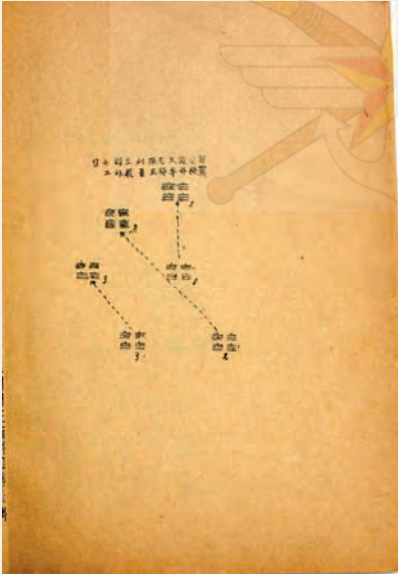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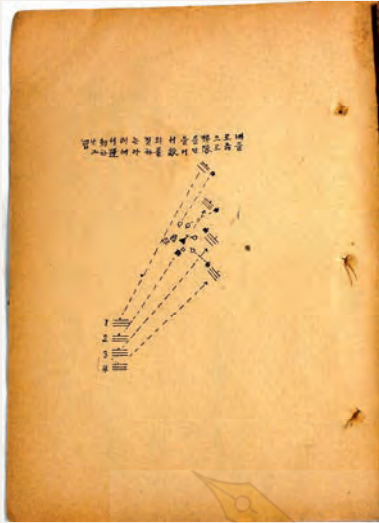
부록은 ‘읽기 어려운 한글 모음’과 ‘보병의 호령 모음’ 그리고 ‘대대와 연대의 전술 전개 예’의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어려운 한글 모음’은 읽기 어려운 한글을 본 글자와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한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보병의 호령 모음’은

각 교련 단계에서 사용되는 호령을 정리하여 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대대와 연대의 전개하는 한본’이다. 이는 대대와 연대가 훈련할 때, 대형의 전개와 임무에 맞는 위치를 설정하여 훈련안을 제시한 것이다. 여러 전술에 맞추어 대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각각의 상황에서 장교들은 어떻게 명령해야 하고 그 명령에 따라 대원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의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전술마다 그림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대대와 연대의 전술 전개 예



에필로그: 근대 군사교범, 그 가치와 깊이를 더하다

19세기 말 한국은 외세의 군사적인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군사근대화를 시작하였다. 이 책이 살펴본 근대 군사교범의 편찬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대한제국은 근대적 군비 강화를 위해 근대적인 장비와 제도를 도입하였고, 군제를 개편하였다. 또한, 군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무관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더 나아가 여러 나라의 군사교범을 수집하여 교육에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교범도 편찬하였다. 그 결과물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설립과 『보병조전』·『전술학교정』·『야외요무령』 등의 군사교범이다. 이 책의 제1장에서 살펴본 『보병조전』·『전술학교정』은 근대적인 군대를 양성과 그를 위한 근대적 군사교리의 도입을 추진하던 대한제국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결실이었다.

다만, 일제의 국권 침탈로 인해 우리의 땅에서 그 결실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군사근대화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독립군 기지건설을 계획하며 간도로 이주한 애국지사들은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북간도의 사관연성소를 비롯한 다수의 군사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지휘할 수 있는 무관을 양성하였다.

이들 무관학교는 대한제국 시기에 발간한 군사교범과 다수의 외국 군사교범을 활용하고 현실에 맞게 익히면서 군사교리와 전투에 필요한 지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 책은 『신흥학우보』에 실린 「보병전투」의 일부와 『대한군정서 훈련교본』을 통해 그 노력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교재개발과 훈련 경험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교범 편찬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 직후부터 ‘군대의 편성과 독립전쟁 수행’을 목표로 군사 활동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군대조직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간부양성과 모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는 체계적인 군사 간부의 훈련과 교육을 위해 군사교범의 편찬과 발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1919년 12월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를 비롯한 세 가지 군사 관련 법규를 제정한 것, 상해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 그리고 1924년에 『보병조전초안』을 발행한 것은 임시정부 군사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보병조전초안』은 군사 간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임시정부에서 편찬·발행한 군사교범으로, 대한제국의 근대화 노력과 애국지사들에 의한 초기 독립군 양성, 그리고 그들의 전투 경험이 집약된 산물이다. 따라서 『보병조전초안』을 통해 임시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군사훈련의 목적과 독립군의 군사훈련 양상을 파악·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한 육군무관학교는 1년 정도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1920년 말에 중단되었다. 이후 임시정부는 중국의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특설반’ 등을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해야 했다. 이 시기의 군사교육은 개교 단계부터 한인교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교범 개발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축적된 훈련과 교육의 경험, 그리고 교재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대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이후에도 광복군의 훈련을 위한 군사교범은 계속 편찬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무부 산하에 군사교범 편찬 조직인 ‘군사학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병조건』·『진중요무령』·『지형학』·『사격교범』 등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 교범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편찬 사실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교범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병조건초안』은 『보병조건』의 편찬과 교육내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한제국 시기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까지 우리 민족은 국권 침탈과 회복을 위한 지난한 노력의 시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편찬된 군사교범들은 점차 그 가치와 깊이를 더해갔으며, 독립군에서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항일투쟁의 역량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고종실록』

『일성록』

『일본외교문서』

『대한계년사』

『독립신문』

『신동아』

『국역 석주유고』 상·하

『독립신문』·『동아일보』

『보병조전』

『전술학교정』

『보병조전초안』



영인본

『독립운동사자료집』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전술학교정』 상·하(김원권 편역, 국방군사연구소, 1999)

『전술학교정 : 광무6년 제1판 : 한글본 :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
범 1-3권』(육군군사연구소, 2021)

김학규, 「三十年来韩国革命运动在中国东北」, 『光復』 제1권2기
(1941.3.)(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영인본, 1987)

2.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37 - 서세동점과 문호개방-』,
국사편찬위원회, 2000
-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 박환, 『신흥무관학교』, 선인, 2021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아세아문화사,
1999
-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 이관직, 「우당 이회영 實記」, 『우당 이회영전』, 을유문화사, 1985
-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사, 1974
-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50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수기·신흥무관학교』(한국
독립운동사자료총서 33),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3. 연구논문

- 김강녕, 「신흥무관학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민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발행 『보병조전초안』, 『기록인(IN)』 3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5
-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병조전초안』의 편찬과 성격」, 『군사연구』 144, 육군군사연구소, 2017
- 김주용, 「신흥무관학교의 문을 두드리다-독립군 배양의 요람, 그 실체를 확인하다」, 『청산리대첩 이우석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김주용, 「신흥무관학교와 무장독립투쟁」, 『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육군의 역사』(육군사관학교 학술회의자료집), 2017
- 박환, 「북로군정서의 성립과 활동」, 『국사관논총』 제11집, 1990
- 박현숙, 「북간도 대한군정서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徐仁漢, 「大韓帝國 軍事訓練 體系에 대한 一考察 -《步兵操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33, 1996
- 신용하, 「대한군정서 독립군의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 이동언, 「서일의 생애와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권, 2011
- 이재석, 「가짜 독립유공자를 고발하다: KBS <시사기획 창-밀정2부작>」, 『신문과 방송』 통권586호, 2019

- 임부연, 「강유웨이(康有爲)의 정교관계 담론」, 『종교와 문화』 38권, 2020
- 林在讚, 「訓練隊 士官養成所에 대한 一研究」, 『三士論文集』 제18집, 1984
- 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의 군사교범-학술학을 중심으로」,
『三士論文集』 제28집, 1989
- 林在讚, 「舊韓末 陸軍武官學校의 軍事教範」, 『三士論文集』 제29집, 1989
- 장석흥, 「훈춘 북일학교의 건립과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제31집, 2009
- 장세운, 「신흥교우단의 기관지 『신흥교우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6집, 2010
- 장세운, 「一松김동삼의 신흥무관학교 참여와 통의부」,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편,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학술회의 자료집), 2014
- 장세운,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안동
유림의 남만주 이주와 이상룡·김동삼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제24집, 2017
- 조동걸, 「만주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
제111호, 2000
- 조필근, 「만주지역 독립군군사교육자료의 현대적 해석과 함의: 『신흥
학우보』와 『독립군간부훈련교본』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
논총』 6-2권, 2017
- 車文燮, 「舊韓末 陸軍 武官學校研究」, 『아세아연구』 제50호, 1973
-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尹琦燮」, 『한국근현대사연구』 67집, 2013



■ **집필**

정형아(군사사부장)
전호수(군사사부 선임연구원)
한동훈(군사사부 선임연구원)

■ **자문 및 집필협조**

김민호(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감수**

김주용(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황선익(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군사교범, 근대군사교육의 시작

발행일 2024년 5월 31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 M24050217



신고유형 홍간첩/재래첩·보안사고(위법)·외국통/방안 스파이·군사기밀유출	상금내역 간첩선·간첩: 최고 20억원 테러·위법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전화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	--	---

국방 헬프콜 1303	병영생활 고충 상담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군·공중·일반·유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검색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233-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비매품/무료
33290
9 731135 981160
ISBN 979-11-5598-116-0